

**2019
새해
권두언**

2019년 붉은 해가 남방 땅 인도네시아에 떠올랐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 100년을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여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안 재외동포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올해로 한인진출 99주년을 맞는다.

우리고 지난 100년의 기억을 더듬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 진출 99년에 걸맞은 성숙한 대한민국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우리 동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100주년을 준비해야 한다.

1920년 9월 20일 독립운동가 장운원은 바타비아(자카르타 옛 이름) 항구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는 동경에서 독립군 군자금 지원을 하다 일본군사에게 쫓겨 상해 북경을 거쳐 화란 바타비아 정부에 일하게 된다. 25년후 일본군이 인도네시아까지 침략하고 폐망하자 일본군속으로 끌려온 조선한인 구명운동에 나섰다.

장운원은 인도네시아 첫 한인회 ‘재자바조선인민회’를 창립하고 바타비아 반동 스마

한인진출 99년, 인도네시아 한인100주년 기념관을 세우자



<지난 12월 30일 모나스광장에서 자카르타 시민이 밝은 무게 구름이 펼쳐있는 모나스탑을 바라보고 있다.>

랑 지부를 세워 조선한인 본국 귀환을 도왔다.

그의 자녀 가운데 아들 장순일은 자카르타 중심가에 있는 ATMA JAYA대학 설립자가 되었고, 딸 장평화는 UI영문과를 졸업하고 초기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다 여한증 서기관과 결혼하여 한인정착을 적극 도왔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는 인도네시아 국가이념인 Pancasila(판카실라)와 비네까 텡

갈 이까(Bhineka Tunggal Ika)를 존중한다.

다문화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다양성의 일원화는 글로벌 시대에 배워야 할 이념이다.

한(韓) 민족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처럼 인간존중을 통한 다양성의 일원화로 외국인 커뮤니티를 맞이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ASEAN 시대에 인도네시아는 한국 청년 차세대의 장(場)

으로 펼쳐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 99년을 맞는 2019년.

강점과 분단을 딛고 세계 속에 한인사회를 견인해 온 선배 세대에겐 회한과 감회의 100년을 목전에 둔 해이다.

이제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다른 100년을 위한,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주년 기념관’은 차세대에게는 정체성을 재고시켜 주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는 함께 피를 나눈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의 형제로, 한인 역사의 의의를 일깨워 주어 화합과 상생의 활로를 함께 고민하는 공감의 터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100년 후에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인건비에 치중한 수출 제조업중심으로 한인기업은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100년 이후를 맞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청사진 로드맵은 어디엔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곳이 100주년 기념관이다.

한인동포 사회에 드러진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자. 한인 1, 2세대들이 일구어 놓은 터전을 바탕으로 차세대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00년 장터를 만들어 주자.

<편집부>



2019 신년특집

▶2019년 기관장 및 한인단체장 새해소망

▶2018 분야별 10대 뉴스

- 정치분야
- 경제분야
- 사회분야
- 한인사회분야

▶순다해협 쓰나미 참사에서 살아나온 한인동포 세가족 12명

지난 10년 간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을 변화와 도약의 기점으로,
 혁신적이고 감동을 주는 금융서비스로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Call KEB Hana 1-500-021
 PT Bank KEB Hana Indonesia is registered and supervised by Financial Service Authority (OJK)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최우선 임무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사



공감의 원동력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양국간 긴밀한 유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는 지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 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동포 분들의 값진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사관은 동포사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 보호는 제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사관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처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영사서비스 지속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동포 분들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사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새해는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모쪼록, 인도네시아 한인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골고루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셨던 동포 분들, 그리고 중부 솔라웨시 지진/쓰나미 사태에서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그 가족 분들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재해 대처 과정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신 동포 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9년은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세안(ASEAN)과 한국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정부는 2019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금번 정상회의는 이제 본 궤도에 올라 다양한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싼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의 협조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는 싼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9년 한 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및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자,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개최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식민과 독립투쟁의 역사를 함께 하는 양국 국민의 정서는 상호 이해와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승은호 회장/
코린도 그룹.한인회명예회장



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의 새해는 지난해에 교민들이 보여준 저력과 노력 그리고 정성만큼 큰 꿈이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1일
기해년 새해 아침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치러 국제행사 개최의 가능성을 보았던 반면, 롬복과 솔라웨시 지역의 지진 해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교민 여러분이 고군분투했던 지난 1년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을 거란 짐작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극복해 오신 모든 교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우리 삶에 큰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되돌아보기 보단 새 마음을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동포 사회가 되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협력하고 양보하자

양영연 회장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사랑하는 한인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행사가 많았고 인도네시아에는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여 잘 감당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속의 우리 한인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첫 이주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물론 경영 2세대 및 여성들도 한인사회의 중심축으로 합류하여 한인사회의 정서를 공유하고, 화합의 주제로, 한인사회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디나 마찬가지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와 상대의 의견이 다를 지라도 대화로 그 간격을 좁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협력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한인사회가 그동안 걸어 온 경로도 무시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과 뜻을 함께하며 전통과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 목표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속의 사람들과 정서와 이해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에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한인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ROW JIKS

백우정 교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교육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동참해 주시는 직스 교육가족과 한인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JIKS는 2019학년도에도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비전으로 질문과 토론으로 행복을 가꿀 줄 아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어민 영어수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영어회화는 물론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문제해결수업(Problem based learning)도 원어민이 이 지도하고 Cambridge 교육과정도 확대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김종성 목사/ 한목협 회장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인도네시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잘 치뤄 국격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여러가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교회들과 한인 선교사님들이 롬복 지진, 팔루

쓰나미 등의 재난복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질과 헌신으로 도왔습니다. 이 일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인교회와 한인 선교사로서 참으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곳은 일 먼저 하는 교회, 낮은 길 먼저 가는 교회로서 이땅의 소외계층을 위해 낮은 곳에서 계속 섬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땅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높이 도약하는 한인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갑니다

이명호 선교사 / 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

인도네시아를 뒤쫓고 있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고통의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롬복 지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인 선교사 협의회 소속 구호대책 위원회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장을 다녔습니다. 지진 가운데 무너진 많은 집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집은 무너지지 않았죠? 저 집은 한국인이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 그분을 만나게 되어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지은 집은 어떻게 지진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선교사님 저는 불량품 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였습니다. 들으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역시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펼쳐버릴수가 없었습니다. 반석위에 지은집 무너

지지 않습니다. 다른 업자들이 불량품 쓸 때 정품을 쓰면 돈은 더 들지만 지진에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자재를 대준 중국계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만든집은 튼튼한 집이야. 그래서 다 짓자마자 집이 금세 팔려 나간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더 벌수 있는데 이렇게 짓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제 자식이 이 다음에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튼튼한 건물은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하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전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를 외운뒤에 보낸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아버지였습니다.

튼튼한 기초를 짓는 그 밑바탕에는 이런 정신의 뿌리가 깃들



여 있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 나가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서의 정신. 외국에 살지만 나는 한국인이야! 이런 살아있는 정신과 튼튼한 기초.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튼튼한 한인 사회를 이루는 뼈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2019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기초를 튼튼히 하고 더운 날씨에 열가락처럼 늘어져 버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인니 사회를 주도해 나가시는 동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 합니다.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기업법무, 투자 & 비즈니스컨설팅, M&A, 송무, 개인법무.

부동산, 자원개발, 지식재산권, 파산관재.

Corporate, Investment & Business Consulting, M&A,

Litigation, Arbitration, Private,

Property, Natural Resources, IPR, Curator

yisngmin@gmail.com, yisngmin@centrin.net.id

Tel. (62-21)525-5959, 527-2422, Fax. (62-21)527-2423

MP. (62)816-1911245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대표변호사 이승민, YI SENG MIN, SH, MH

무료 법률상담, Free Legal Consulting

• 주일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Jl. Wijaya I No.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Tel. (021)720-5979, MP. 0816-1911-245

• 화요일 : 오후 2시 - 4시 [Jakarta 무역관] Wisma GKBI Suite 2102, Jalan Jenderal Sudirman No.28 Jakarta Pusat, Tel. (021) 574-1522

2018 송구영신 덮친 순다쓰나미

화산 만조에 조기경보 없어 사상자 7,646명...한인동포 세가족 12명 무사귀가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저녁 9시30분 반뜰주 안에르와 수마트라 람뽕에서 성탄절 휴가를 즐기던 주민들은 조기경보없이 밀려든 쓰나미에 무참하게 휩쓸려 갔다.

재난관리당국은 이날 쓰나미로 마을 주민과 관광객 431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는 15명, 부상자는 7,200명, 이재민 46,646명 인적피해를 당했다고 12월 29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쓰나미는 사전 쓰나미 경보가 울리지만 사고 당시에는 어떤 예고도 없어 인명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2월 2일 현재 쓰나미로 재산피해도 가옥파손 1,778채, 가게파손 78채, 어선 434척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순다해협 인근에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해일은 내륙 쪽으로도 20m까지 밀려왔다. 반뜰주에 있는 뽕뜨글랑, 세랑, 안에르, 판중르승 그리고 수마트라주 람뽕 남부지역 Tanggamus, Pesawaran을 강타했다.

당시 유명 관광지인 판중르승 리조트에는 청소년체육부 공무원과 전력공사 PLN 서부자와 지

역 행사에 유명 록밴드 세븐틴 초청 공연 도중에 쓰나미가 덮쳐 수십명이 사망했다.

이번 순다 쓰나미의 원인은 22일 보름달에 만조 현상으로 바닷물이 높았고, 순다해협에 있는 화산섬인 아낙 크라카타우가 분화하면서 해저 산사태가 발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순다대교 취소할 정도로 지진 취약지역

순다해협은 자와 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해있다. 평소에도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인도네시아 SBY 정부는 자와 섬과 수마트라 섬을 잇는 순다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측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한국기업도 적극적으로 순다대교 건설 프로젝트에 대응했다. 하지만 조코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순다대교는 화산과 지진문제로 취소해버렸다. 순다대교 건설 효율성보다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더 우려한 조치로 순다해협은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다.

찢레곤에 한국공장 피해우려
특히 해안에 위치한 찢레곤에는 인도네시아 국영제철소인 그



12월22일 순다해협에 있는 화산섬인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하여 반뜰주 뽕뜨글랑, 세랑, 안에르, 판중르승 그리고 수마트라주 람뽕 남부지역 Tanggamus, Pesawaran을 강타했다.

라까따우 제철소와 포스코 합작사인 포스코 크라카따우 제철소와 관련 한국기업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들도 준비해 있어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찢레곤에는 한인동포들이 300여명 거주하고 있고 이번 피해가 심한 안에르에도 한국인이 2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당국은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주변에는 조수 관측기를 설치하고, 상공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해 화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낙크라카타우 화산활동과 기상악화로 높은 파도일고 있어 추가적으로 순다해협에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해저에서 재차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안에서 500m~1km 이상 접근하

지 말 것을 권고하고 주변보다 10m 이상 높은 지대에 머무르라고 당부하고 있다.

쓰나미 조기경보 작동안돼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화산활동, 쓰나미 등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번 순다해협 쓰나미 발생 시 주민들에게 아무런 조기경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해 경보 시스템이 취약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지진 활동 등 다른 전조 없이 갑작스레 쓰나미가 덮쳤다. 당국은 조사 끝에 쓰나미 발생 3일후 12월 25일에서야 순다해협에 위치한 화산섬 '아낙 크라카타우' 경사면이 붕괴하면서 진도 3.4 지진이 발생하고 해저지형의 급격한 변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24분만에 연안을 덮쳤다

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한인동포 세가족 12명 쓰나미 현장에서 무사히 살아와

이 같은 삶과 죽음의 현장의 갈림길에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두가족 7명은 안에르 해안에서, 한가족 5명은 판중르승 해안에서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생활했다.

자카르타 근교 찢까랑에 사는 송주영씨(인도네시아 생활 21년)는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로비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다'라는 직원들의 소리와 함께 파도가 덮쳤다. 아내 아이 데리고 무조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건지고 쓰나미 대피당시 죽는 줄 알았다. 산속에서 마을주민들이 아비귀환속에서도 도와주고 대사관과 한인포스트에서 연락줘 12

시간만에 겨우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자카르타에 사는 정윤석(인도네시아 생활 20년)씨 가족은 "쓰나미가 덮치기 1시간 30분전에 판중르승 리조트에서 2박3일 숙박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객실도 냄새가 심하고 저녁 시간에 공연이 너무 소란해서 자카르타로 뒤돌아 왔는데, 돌아오는 도중 쓰나미가 왔다는 밴드속보를 보고 너무 놀랐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남편의 결정파랐는데 하늘에게 감사 드릴뿐이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인동포들은 "엄청난 사상자속에서 살아돌아와 천만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관련기사 A6면에서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2019, 기해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토박>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식을 보약처럼' 여기는 마음을 담아, <토박>을 찾아주시는 교민 여러분들의 귀한 만남이 소중한 추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교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기해년 새해
<토박> 김평수 부부 올림



KOMP. GADING BUKIT INDAH BLOK.I NO.01
TEL: 62-21) 4584 3133, FAX : 62-21) 4585 2491/2/3
E.MAIL : fcl@fcl.co.id HOMEPAGE : http://www.fcl.co.id/

한인 기업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참이 도울 것

송창근 회장
/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존경하는 한인 동포 및 기업인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희망차고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한민국 안팎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동 가능성에 대한 혼란, 미연준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루피아 불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다하신 우리 한인 기업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도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는 4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8%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9년 미연준 기준 금리 인상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

의 정책에 따른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변수로 우리 기업인들은 여전히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공유 경제, 자동화, 인공지능 등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지털 경제 가치를 지닌 인도네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선 인터넷이 생활화된 군도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지갑 및 온라인 화폐 결제 서비스 또한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을 도모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되었으며, RCEP을 비롯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 협상도 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환경 속에서 올 한해도 우리 한인 기업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참이 돕겠습니다. 그간 코참은 내부 혁신과 외국 상공회의



소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관 단체장들과 경제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각종 설명회를 통해 정보 공유에 힘쓰는 등 한인 기업에 보다 더 나은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참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 있는 해외 경제 단체를 지향하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인기업뿐 아니라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 동포 및 기업인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코참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한인 기업인 및 동포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

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Go Global,
KOCHAM Together!

한인 경제가 더욱 승승장구하는 2019년 기해년 되길

이경윤 회장
/동부자바 한인회

재인도네시아 동부자바 한인회 제28기 신입회장 이경윤입니다.

2018년 무술년이 지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보통 황금돼지의 해라 부릅니다. 이것은 기해(己亥)년의 기(己)가 땅을 의미 하기 때 문인데 땅은 한자어로 누를 황(黃)으로 표현 합니다.

누를 이란 뜻은 황금색 이란 뜻이기 때문에 보통 기해년을 황금 돼지의 해라 불리어 지는 이유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해년에 자녀를 낳으려

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황금돼지띠에 출생한 사람들 성격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쉽게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 및 한인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이 불황과 어려움 속에 황금 돼지띠의 장점 중 하나인 잘 극복해 나가는 한인사회, 한인기



업이 됐으면 하는 기원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경제가 더욱 더 승승장구 하는 2019년 기해년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동포 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룩하자

배석기 회장
/ 족자카르타 한인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황금돼지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8년도 인도네시아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때마다 각 지역 한인동포사회에서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아시아인들이 하나가 되는 큰 축체인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중심으로 한결

음 더 나아가고, 세계적인 경기를 치르면서 공공질서 의식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도네시아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빠른 발전을 기대하는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오랜 협력 동반자인 한인동포 사회의 더 큰 관심과 화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한인동포 사회와 인도네시아 사회가 함께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사회가 경제적



으로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룩하여 성공한 한인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시는 모든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년편지를 쓰세요

사공 경 원장
/ 한인니문화연구원

올해로 3.1 독립만세운동이 100년을 맞이합니다. 임시정부(임정) 수립도 100년을 맞이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고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일제의 회유에 갈등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웁은 일은 하다가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 수의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는 너와 현세에서 재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조마리아여사는 평생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 활약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다. 독립운동가들의 낯을 위로하면서 정성어린 편지를 쓰세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수록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새기며 우리의 오늘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먼 이국 땅 인도네시아에서도 독립을 위해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일로 체포령이 떨어져 만주를 거쳐 1920년 바타비아(자카르타)에 첫발을 디딘 장운원선생님은 독립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고려독립당의 민영학, 손양섭, 노병한 의사는 암바라와 거사 후 옥수수



밭에서 자절을 합니다. 암바라와 성요셉 성당의 만종이 그들이 들은 마지막 종소리라고 하지요. 그곳에는 언제나 그들의 숭고한 정신만큼이나 높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붉게 피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친 그들에게 존경과 그리움을 종소리에 실어 백년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동포와 함께 남북한 평화 공동번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

송광중 회장
/ 민주평통 동남아협의회

동포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속에서 온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고 즐거움과 기쁜 일을 많이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비핵화를 목표로 역사적이며 감격스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중심국가 인도네시아에서 남북한 평화 공동번영 행사가 많았습니다. 2018년 8월 18일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공동 입장했습니다. 한인단체는 민간협의회를 조직하여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였으며, 민주평통 회원들은 대한민국 선수

단 1 남북단일팀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성적 3위, 남북단일팀은 28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10월 6일 자카르타에서 아시안장애인게임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공동 입장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한 남북단일팀은 31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남북이 평화 공동번영을 위하여 군비통제 단계로 DMZ와 JSA에서 평화 지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공동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정국 상회담 이후 남북 병해충 방제와 양모장 현대화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도 유엔의 승인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각국 대사관 한인회 민주평통 공동으로 남북한 공동행사, 제6회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5-6월 북한 원산 개최, 10월 전국체전 100주년 서울과 평양 공동개최, 11월 11일 개천절 평양 단군동 광장 개최 등 많은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동포들 속에서 동포들과 동포를 위하여 남북한 평화, 공동번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LE SALE SALE OKTA”

배응식 회장
/ 세계한인무역협회
World-OKTA 자카르타 지회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 World-OKTA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는 조국의 무역 증진과 국위 선양을 위하여 1981년 4월 2일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한 세계 각국 한인 무역상 조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 중 최대의 한민족 해외 경제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74개국 150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0,000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입니다. 월드옥타는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강화, 산업정보 및 기타 회원 상호 간에 이익증진과 협조

강화를 목적으로 KOTRA 지원으로 조직된 후, 1994년 '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제적 해외교포 경제·무역단체입니다.

인도네시아 월드옥타는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고 있으며, 초대 김우재 회장, 2대 최동욱 회장, 3대 강희중 회장, 저는 4.5대를 맡고 있으며 40여 회원들이 “sale sale sale OKTA”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9년 월드옥타 인도네시아는 3개 지회 활성화와 한인지역 경제에 역군이 될 자카르타 차세대들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

습니다. 특히 월드옥타 차세대 무역스쿨은 그간 11년간 무역일꾼 543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이 차기 한인사회 리더스 계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각종 이견도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남방땅에서 한인동포가 다같이 함께 가겠다는 모습으로, 발전과 단합을 위한 계기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각종 이견도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소통하는 문화를

채만용 회장
/ 땅거랑 한인회

2019년 기해(己亥)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한해의 시작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출발을 염원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오래전 성공한 한인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먼저 발을 디딘 선배들은 숭고한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이땅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한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는 우리 선배들의 역경속에서 일구어낸 산실이라 봅니다.

이러한 전통과 진행중인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갈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땅에서 우리 한인동포 모두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지난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보여줬던 우리 동포의



단합과 열정은 그간 이방땅에서 잠재되어 있던 한민족의 뜨거운 혼을 보는듯 했고 우리는 하나라는 감성과 소통의 실체를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2019 기해(己亥)년 새해에도 우리동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나은 우리동포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태권도 도장을

방진화 회장
/재인도네시아 대한 태권도협회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를 보내고 이제 2019년 개해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기원 합니다. 돌이켜 보면 2018년에는 유난히도 바쁘게 지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지난 2월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6월 대한민국 제2군사령관 배 태권도대회,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세안 게임, 10월 제99회 이산 전국체전 등 바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땅거랑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40여명을 전원 유급 사범을 통해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99회 전국체전에도 출전시켜 경험을 쌓게 한 뒤 차후 태권도 지도자로 육성시켜 당당한 다문화 가정 자녀로, 또 지도자로 인도네시아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성장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계획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보다 더 많이 알리고 보급시키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태권도 도장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저에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열악한 환경에서 땅거랑에 있는 고재천 목사님이 운영하는 무지개공부방에서 유급 사범을 통해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매주 3회씩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언제나 필요로 하는 한국인으로, 선수로 육성하겠습니다.



순다 쓰나미 아비규환 참사에서 살아나온 한인동포 세가족 12명

지난 12월 22일(토) 순다해협에 쓰나미가 덮치고 7일 차인 29일 인도네시아 재난재해관리청(BNBP)는 사망 431명, 부상 7,200명, 실종 15명, 이재민 46,646명, 가옥파손 1,778채, 가게파손 78채, 어선 434척 파손되었다고 피해현황을 발표했다. 무려 7,60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순다 쓰나미 참사는 사전 쓰나미 경고가 없

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삶과 죽음의 현장의 갈림길에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두가족 7명은 안에르 해안에서, 한가족 5명은 판중르송 해안에서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생환했다.

한인포스트는 지난 12월 연말에 직접 인터뷰를 통해 긴박했던 상황을 들어봤다.<편집자>



송주영씨 가족/ 인도네시아 생활 21년차. 자카르타 거주

“쓰나미 대피당시 죽는 줄 알았다. 아내 아이 데리고 무조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마을주민들 아비규환속에서도 도와줘 12시간에 겨우 빠져나와 ”



자카르타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송주영씨 서모씨 두 가족 7명은 성탄연휴를 맞아 반존주 안에르 해안에 있는 G호텔에 투숙했다가 쓰나미가 몰려왔다.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다.

“영화로만 보고 인터넷으로 봤던 쓰나미를 직접 겪을 줄은 몰랐다. 안에르 해안에 있는 G호텔에 투숙하고 저희 가족들은 호텔 로비에서 같이 놓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 해안가에 있던 현지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로비 안쪽으로 들어왔다. 저희도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다같이 뒤를 봤더니 파도가 호텔 쪽으로 덮치는 걸 확인

하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급히 뛰어나갔다. 호텔밖에는 이미 거리가 모두 물바다 되어있었다. 어다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무조건 앞사람 보고 달려갔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발목을 다치고 아이는 물에 빠지고 찰과상을 많이 입었다. 산에 있는 사원에 대피하면서 핸드폰으로 구조를 알리고 있었지만 추가 쓰나미가 온다는 말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화산폭발한다는 소문에 대피현장은 폐쇄 상태였다.

다음날 현지주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우리 가족만 남았다. 한인포스트와 대사관 연락을 받고 구조를 기다렸다. 핸드폰 배터리는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구조를 기다릴 수 없어 마을로 내려가 정말 어렵게 차를 구해서 자카르타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변가는 이미 도로가 폐쇄가 됐고, 많은 잔재물로 인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투숙했던 호텔에 아직 승용차 2대와 호텔방에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피해당시 마을 주민들이 핸드폰 충전을 도와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큰 사상사를 낸 가운데도 가족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정윤석씨 가족/ 인도네시아 생활 20년차. 자카르타 거주

"쓰나미 1시간 30분전 판중르송 리조트 2박3일 숙박포기하고 돌아와...생사의 갈림길에서 남편 결정마라 가족 모두 살아"

“저희 가족 5명은 지난 12월 22일(토) 자카르타에서 3시간이상 떨어진 판중르송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고 특히 성탄절 휴가가 23일 금요일 오후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라서 많은 사람이 판중르송 리조트에 몰렸습니다. 판중르송 리조트에 도착해 객실에 들어가 보니 잘 정리 되었지만 너무 낡고 냄새도 많이 나고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쉬고 싶었는데 실망했습니다. 아마도 단체손님과 황금연휴를 맞아 객실이 부족하다보니 그 방을 잡아준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자는 남편의 말에 황금연휴를 마친 리조트에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제트스키(JET SKI)를 타고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오른쪽 사진)

저녁에 되자 야외무대는 축제장으로 변해 공연이 시작되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녁식사 테이블에서 멀지않은 거리에 공연장의 요란한 락 음악과 노래가 조용히 성탄휴가를 지낼려는 우리 가족의 황금휴가와 맞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쓰나미 뉴스를 보고 그제 PLN(전력공사) 직원 야유회와 SEVENTEEN 락 가수공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쓰나미가 공연장을 덮쳐 PLN직원과 가족 30여명과 락그룹은 1명만 살고 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되돌아가자’고 결정했어요. 저녁식사를 하면서 저 멀리 ANAK KRAKATAU 화산에서 빨간 불기둥이 오르고 있었지만 리조트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배달하느라 겨를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요란한 락 음악과 바다건너 화산 불기둥을 멀리하고 판중르송 리조트 2박3일 숙박을 포기했습니다. 환불도 안 되고 또 저녁 늦은 시간에 서너 시간 차타고 다시 되돌아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는데 남편의 결정에 가족모두 따른 거죠. 돌아오는 길에 안에르 해안 길을 타고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안에르 해안으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 역방향 자카르타로 가는 길은 수월해 빨리 자카르타로 돌아 올수 있었습니다.



안에르 해안에 해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돌아오는 차안에서 밴드속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판중르송 리조트와 안에르에 쓰나미가 덮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중르송 리조트에서 그날 밤 다시 돌아갔다고 남편이 결정한 사실도 신기했고요,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CGV CINEMAS

ENJOY YOUR TIME

4DXGOLD CLASSSTARIUMSWEETBOXVelvetSCREEN X

NOW SHOWING

COMING SOON

www.cgv.id

@CGV.ID

@CGV.ID

@CGV_ID

@CGV_ID

021 - 29 200 100

GLOBAL LOGISTICS PROVIDER

We provide the optimum solution and customized service with smart logistics system.

KGLGlobal Logistics Provider

PT. KGL Indonesia

The Prime Office Suite TWR LT7 Suite 7A

Jl. Yos Sudarso Kav. 30, Sunter

Jakarta utara, Indonesia 14350

Tel. +62-21-2265-4188

Email : korean@kglijkt.com

http://www.kglnetwork.com

2018년 정치 10대 뉴스

● 조코위 프라보워 후보 5년만에 재격돌

2019년 대통령 선거는 조코위 도도 대통령과 뿌라보워 수비안 또 총재가 다시 출마해 대통령 직을 두고 정치적 격돌 (duel politik)이 발생하고 있다. 양대 대선후보가 5년만에 다시 대통령선거전에서 만났다. 2019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지난 8월 10일 출마등록과 13일 건강검진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해, 정가와 국민은 5년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대선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조코위- 마루프 (Jokowi - Mar'uf Amin) 조와 뿌라보워- 산디아가 (Prabowo Subianto- Sandianga Uno)조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등록한 후, 인도네시아 유권자들도 양분화되었다.

조코위- 마루프조는 투쟁민주당 (PDIP), 골카르당 (Golkar),

나스데미 (Nasdem), 국민계몽당 (PKB), 국민개발당 (PPP), 하누라당 (Hanura)의 지지를 받았고, 뿌라보워-산디아가조는 그린드라당 (Gerindra), 국민수권당 (PAN), 변영정의당 (PKS), 민주당 (Partai Demokrat)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양측의 대통령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공식 등록되자, 인도네시아 유권자들도 양분되어 지지자들의 소셜미디어 즉,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하여 서로가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개제하고 있다.

뿌라보워-산디아가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경제문제, 즉 대외부채, 달러에 대한 루피아 환율 하락 등을 이슈화 하고 있고, 조코위-마루프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뿌라보워의 1998년 5월에 일어

난 폭동과 관련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대외부채 상승 및 달러에 대한 루피아 환율 하락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조코위 - 마루프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뿌라보워-산디아가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는 더 높다.

지난 8월 12일-19일에 LSI 연구소가 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코위 - 마루프에 대한 신뢰도 52.2%, 그리고 뿌라보워-산디아가조에 대한 신뢰도는 29.5%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34개주출신 1200명의 대상자 중에 18.3%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22일 중앙선관위는 인도네시아 33개주와 130개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 뿌라보워 후보 46.85% 조코위 후보 53.15%로

조코위 후보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는 23개주에서 승리했으며, 2위 뿌라보워 후보와 8,421,739표 6.3% 격차를 보였다. 당시 지역별 10% 이상 투표자를 보이는 지역으로는 출신지역, 후보자와 정당지지, 계층별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이상 격차를 보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뿌라보워 지지 5개 지역 : 서부스마트라, 고론타로, 반톤, 서부자와, 서부 NTT

*조코위 지지 16개 지역 : 리아우섬,북부스마트라,방가블리퐁섬, 중부, 서부, 동북부 갈리만탄, 서부 중부 남부 슬라웨시, 자카르타, 족자, 중부자와, 발리, 동부 NTT, 서부파푸아, 파푸아

● 조코위-유습갈라 내각 4년 결실은

지난 2018년 10월 20일은 조코위- 유습갈라 내각이 출범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조코위- 유습갈라 내각 행정은 오는 2019년 10월 20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재선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 4년간 조코위 정부는 많은 건설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특히 건설 프로그램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로, 고속도로, 항구, 공항 건설이 돋보였다.

그러나 오는 4월 대선과 총선

을 앞두고 있는 조코위 정부는 달러대비 루피아 환율이 15,000 루피아 이상 약세를 보이자 지난 10월 설문조사에서 만족지수가 65.3%까지 떨어졌다. 조코위-유습갈라 내각출범에 행정과 정치안보분야 국민 만족도는 70%대로 높고, 경제와 법집행 분야 국민 만족도는 50%대, 사회복지 만족지수는 64.8%이다.

조코위-유습갈라 내각은 4년 동안 870만 일자리 제공했다.

물도고 대통령궁 실장은 지난 10월 23일 국가사무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4년내

조코위 내각 취임 전후 주요 경제 지표 비교 평가			
분야	취임 전 2014년	취임 후 2018년	비교차
일자리1000만개		870만개 이행	
경제성장률	5.02%	5.17%	0.15% 늘어
실업률	5.94%	5.13%	0.81% 줄어
인플레이션	8.3%	2.88%	5.42% 줄어
빈곤율	10.96%	9.82%	1.14% 줄어
지니계수	0.414포인트	0.389포인트	25포인트 줄어
국가예산 적자	2.34%	1.01%	1.33% 줄어
경상수지 적자	3.1%	2.6%	0.5% 줄어
외환보유고	1.040억	1.140억 달러	100억 늘어
외환지급준비율	8%	6.5%	1.5% 하락
달러 환율	12,000루피아	15,200루피아	급락추세
외채	2,800억 달러	3,607억 달러	807억 늘어
최저임금	240만 루피아	360만 루피아	

*자료:콤포스 한인포스트

1,000만 일자리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870만 일자리를 제공했

다“며, “일반적으로 거시 경제가 좋은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 초강력 반테러법 국회 통과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2018년 5월 새로운 반테러법을 통과시켜 7월 반테러법이 공표됐다.

지난 2018년 5월 25일 국회는 반테러법 의제를 놓고 난상 토론 끝에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반테러법에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은 ‘폭력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국제시설과 환경시설과 전략적 중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 피해를 유발하는 것, 공포감을 주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졌다.

또한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은 경찰국군, 특별청 요원도 선제적으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했다. 반테러법은 경찰과 군은 해외에서 ISIS 등 테러단체에 가입하여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체포할 수 있고, 테러방지를 위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테러법에 대한 조치는 인권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몇 달 동안 법안 상정에 고심했던 이유는 테러리즘 정의를 규정짓는 문제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테러리즘을 “대규모의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그 어떤 행위, 또는 전략적 주요인물이

나, 환경, 공공건물 및 국제건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는 “정치 혹은 이념적 목적에 근거한 그 어떤 행위나 위협이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반 테러법은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며 과거 반테러법에서는 ‘테러를 계획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반테러법은 테러계획 및 구상도 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테러로 혐의로 체포된 자는 벌금 없이 7일에서 14일간 구금 될 수 있고, 공식적으로 테러범으로 확인되면 최고 200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또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경찰은 테러 용의자를 조치할 수 있다. 테러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전화를 도청해도 된다. 테러 용의자를 구치소에서 30일동안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즉, 반테러법은 잠재적으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는 급진적 교육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급진주의 온건화’ 정책은 과거 테러범으로 수감된 사람이나, 유죄판결자, 용의자 및 테러범죄자를 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 내각개편,장관 중임 금지 공약 깨

2018년 1월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교체된 장관은 코피와 인다르 빠라왕 사 사회 부장관이다. 그리고 후임 사회부 장관으로 이드루스 마르사를 임명했다. 또한 물도고를 대통령실장으로, 야쿰 꾸멜라르를 대통령의 고문으로, 유유 수피스나를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장관이 두 개 이상의 직위를 갖는 것을 반대했던 조코위 대통령은 당 총재가 내각에 임명하는 것을 환영해 공약이행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조코위 행정부 초기 내각을 구성할 때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공약했던 대로 장관들이 두 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갖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Airlangga 장관은 장관업무를 속지했고 남은 기간의 새로운 부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 독립 100주년 2045프로젝트 발표 인도네시아-일본 청사진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2045년 인도네시아’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청사진은 인도네시아 일본 학자들이 동원되어 2045년에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Kompas 신문은 지난 12월 10일 보도했다.

‘2045년 프로젝트 (Proyek 2045)’라는 이 청사진은 지난 12월 9일에 자카르타에서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 유습갈라 부통령에 의해 주관된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2045년 인도네시아 일본 청사진 배경은 지난 1942년 3월 1일 침략관계를 청산하고,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과 1958년 1월 20일 양국 수교 그리고 2018년 양국 수교 60년을 기념하고 있다.

일본 꾸마모토 대학 Takashi Shiraishi 총장은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6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은 후, 20세기에 일본은 아시아 경제 강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도 경제 성장이 지속된

다면 2040년에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5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5년 인도네시아 일본 청사진은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의 비전을 이룩하고, 일본은 제5차 산업 혁명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2050년 장기 기획도 제시했다.

2045년 인도네시아 일본 청사진의 목표는 첫째,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강한 해양국가로 만든다. 둘째,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되게한다. 셋째, 2030년 지속적인 개발 (SDGs)로 중산층 생활수준을 이룬다.

이 세가지 목표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10가지 극복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민주주의 강화 2. 해양안보 강화 3.세계에 상품 공급망 강화 4.인프라 건설 5. 투자 활성화 6. 인력 개발 7. 지역경제 강화 8. 공정한 사회 9. 디지털 기술 개발 10. 재난 재해 방지.

● 정치인 비난금지 MD3 입법 논란

뇌물수수 등 비리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 온 인도네시아 하원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다가 조코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월 2일 일간 콤포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의 존엄을 무시한 개인과 법인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기관법(MD3) 개정안이 통과됐다. 구체적 증거 없이 하원이나 소속 의원이 부패했다고 언급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하원윤리위가 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인물을 강제 구인해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대통령 외에는 하원의원을 소환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혼전성관계 금지와 동성애 불법화 등 다른 쟁점 법안 사이에 슬쩍 끼워넣어져 처리되어 법안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에선 거센 역풍이 일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전문가인 페리 암사리는 “국민의 권한을 대리하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이 자신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 부통령 후보 마루프 아민 대 산디아가우노 정책



2019년 4월 대선 후보자인 대통령 조코위와 뿌라보워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부통령 후보를 발표해 정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대통령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9일 조코위 대통령은 라닝메이트로 이슬람 최고 단체인 온건주의적 나흐나톨 울라마 (이하 NU) 출신이며, 이슬람지도자평의회 MUI 마루프 아민 (Ma'ruf Amin) 의장을 발표했다.

또한 부통령 낙점에 막판까지 고심한 뿌라보워 수비안또 그린

드랑당 (Gerindra)총재도 같은 정당인 현 자카르타 부지사인 산디아가 우노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해 이슈가 되고 있다.

산디아가 우노의 재산은 5,099,960,524,965루피아이다. 뿌라보워 총재는 산디아가 우노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아구스 하리무르피 유도요노를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산디아가 우노를 부통령으로 선정했다. 뿌라보워 수비안또 총재는 “산디아가 우노가 경제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인이기에 부통령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 2019년 4월 17일 동시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대표, 지방의원

2019년 총선거에 관한 개정법이 지난 7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DPR) 선거, 지방대표위원회(DPD)선거, 주/시/군 지방의원(DPRD I, DPRD II) 선거가 오는 2019년 4월 17일 동일에 실시된다.

2019년 총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는 지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25%와 의석 20% 정당 연합

을 구성해야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에 투쟁민주당(PDIP), 골카르당(Golkar), 국민계몽당(PKB), 국민개발당(PPP), 나스데미(Nasdem), 하누라당(Hanura) 6개 여당연합 정당은 찬성하고, 그린드라당 (Gerindra), 민주당 (Demokrat), 국민수권당(PAN), 변영정의당(PKS) 야권은 반대했다.

●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7년에 통합선거

2018년은 정치인 부정부패 척결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핵심 이슈였다. 부정부패는 주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선거자금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각종 국가사업에 쓰여지는 국민들의 세금이 비양심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머니를 채웠다. 그래서 2018년은 인도네시아의 지방자치 단체장이 새롭게 물갈이 되는 해이다. 청렴하고 양심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은 그래서 2018년 정치권의 제1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주지사 선거가 17개주에서, 시장 선거가 39개 자치도시에서, 군수 선거가 115개 군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인도네시아를 드리웠던 테러 및 선박 사고 등 여러 비운과 논란속에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빨까다 PILKADA’는 비교적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막을 내렸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6월30일 보도에서 “2018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각 지역 투표장 분위기는 평화롭고 축제 분위기였다”고 보도했다. 지자체장은 “이런 투표소의 축제분위기는 시민들의 투표를 북돋아줄 뿐 아니라, 각종 비리로 시끄러웠던 지난 선거를 마감하고 지금의 선택이 6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선거 지역당국은 주장했다.

2027년 전국동시 지자체장 선거 목표로 단계별 통합선거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인도네시아 첫 동시지방선거 시범일시를 2015년 12월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동시지자체장 선거는 총 3단계 시범선거를 거쳐 2027년 완전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매년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를 마치다 보니 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갈등이 많아지자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회의원 비리 전과자 출마금지 법

법무 인권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국회 의원선거에 비리연루 전과자 있는 후보들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데에 합의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7월4일자 에 따르면 법무인권부 위도 에카트자자나 (Widdodo Eakatjahjana) 담당관은 입법 및 지역의회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관리 위원회령 No.20에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서명하고 7월 4일 효력 발생을 선언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 성폭력, 마약 등의 전과자 있는 후보들은 입후보가 금지되며 정당은 이러한 규정을 지킨다는 청렴계약제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이와 같은 금지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 평등하게 관대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통일 개발당 (PPP) Arsul Sani 총재는 새로운 규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골카르당 입법위원이자 내부부를 맡고 있는 제2의회 의장인 Zainudin Amali는 통일 개발당 Arsul 총재의 말에 동의한다며, 2017년 선거에서는 부패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출마를 명백하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위원회가 단순히 정당들에게 부패전력이 있는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노블리스 오블리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인포스트 애독자 모든 분들께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무거운 연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동포들도 늘고 있고, 경제 활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감동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한인사회를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포모두도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한국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인도네시

아에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고 있기에 일터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한다면 선진국형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빈민들을 섬기는 밥퍼사역과 교육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밥나누기는 처음보다 점점 확대되어 현재는 한 주간에 2,100명분(700명분*3회)의 음식을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빈민학교는 현재 5개 학교에 23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자원하고 헌신하는 우리 한인단체들과 개인들이 함께 이 빈민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여 단 한 차례라도 자기를 드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우리 한인사회가 모두 힘쓴다면 우리 한인사회는 도덕적 의식과 나눔을 위한



섬김의 의식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진국형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라 확신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27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란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최원금 선교사 / 밥퍼해피센터 대표

우리소다라 기업금융센터가 Treasury Tower로 12월 17일부터 새롭게 이전합니다

Kantor Cabang Korporat Akan Segera Pindah

Treasury Tower Lantai 26 , District 8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No Telp +62 21 50871888
No Fax +62 21 50871999

24 HOURS
Woori Saudara Call
1500 - 012

www.bankwoori.co.id

신농씨한방병원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진료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장소(간다리아 부근)로 이전했습니다.

***진료과목**
급만성통증 (요통, 전통, 두통, 무릎통증)
각종 내과질환 (소화기, 호흡기 전문)
심장병, 중풍 클리닉
소아성장, 수험생 클리닉
부인과 클리닉 (갱년기 증후군, 생리불순, 불임)
면역강화 프로그램 (찾은갑기, 설사, 만성피로)

평 일 - 9:30 ~ 6:00 (목요일은 12:00까지)
토요일 - 9:30 ~ 3:00
일요일 - 오후 1:00 ~ 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원장 최정(한의사 면허번호 12721)**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석사
대한 한의학회 방제학회 회원
대한 한의학회 면역약침학회 회원

네이버 밴드에서 '신농씨 한방병원'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건강 산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Jl. Sultan Iskandar Muda No.60 (아리따움 치과 1층)
전화번호 : 021-725-1801 081-2224-1075(한방치료)

오늘 저녁, 친구와 함께 꽃살 어떠세요?

1997년 자카르타에 처음 문을 연 청기와는 2018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기와 본점 Jl. Wijaya II No.118 021)724 3062
카사블랑카점 Mall Kota Kasablanka 021)2947 5143
픽에비뉴점 PIK Avenue Mall 021)2257 0974
글라빠가당점 Ruko Inkopal, Blok C 021)4585 1039
간다리아시티점 Mall Gandaria City 021)2923 6432
부리인다를점 Mall Puri Indah 021)5835 4425
센트럴파크점 Central Park 021)2920 1077
알람수트라점 Flavor Bliss, KA27 021)3042 9963

가라와찌점 Supermall Karawaci 021)5422 0108
스마랑점 Jl. Sultan Agung 024)7692 0973
피부부르점 Jl. Alternatif, Cibubur 021)2138 4978
반동점 Jl. Leumah Neundeut 022)2017 638
수라바야 툰중안점 Tunjungan Plaza 031)535 2875
수라바야 파크원점 Pakuwon Mall 031)9914 8120
마카사라점 Mall Phinisi Point 0411)366 3222
메단점 Jl. Imam Bonjol, Medan (오픈준비중)

< 청기와와 함께할 새얼굴을 찾습니다 >
열정을 가지고 청기와에서 함께 일할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업무에 대한 이해력과 감각을 보유한자
-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 있는자
-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주부님도 환영
관심있는 분은 chunggiwa.recruitment@gmail.com으로 이력서를 송부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1-720-52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중고폰 가격은 쉬지 않고 내려 갑니다

**Without Box & Accessories
All Conditions**

😞 친구에게 팔았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 중고폰 팔려다가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면

😊 정액제+검수 후 즉시 통장으로 입금

- ✓ 현금으로 수령하시고자 하시면
검수 후 익일 재방 하시면 됩니다.
- ✓ LCD 파손은 차감

오래된 폰 집에 두지 마시고 지금 방문하세요!

다르마왕사 스캐어-자카르타슬라탄
(The Ranch Market 앞)

롯데마트-겔라빠가당
(ATM BCA 앞)

타임스캐어-피부부르
(Ace Hardware 옆으로 50m)

테라스꼬파-BSD
(Main Lobby)

롯데마트-빈마로
(ATM BRI 앞 - Ground Floor)

벨레자쇼핑-자카르타슬라탄
(2층 엘리베이터 앞)

*Syarat & Ketentuan Berlaku

'인구 5억' 세계 4대 경제권 탄생... CPTT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월30일 발효

일본,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페루,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간 협정이었으나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과 호주가 주축이 돼 11개국 간 협정을 이끌었다. CPTPP의 발효로 참가국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지난 11월 31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PTPP의 발효와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21세기의 새로운 규칙이 확립돼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을 포함해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CPTPP의 규정상 전체 11개 서명국 중 과반인 6개국의 비준하면 60일 이후 정식 발효된다. 나머지 5개국 중 베트남이 내달 중순 의회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페루,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도 국내 발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수개월 내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 발효 이후 참가국 장관들이 2018년 1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하코네(箱根)에서 CPTPP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선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을 상대로 협상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



입 신청국들이 최종 참가할 경우 TPP는 전 세계 GDP의 19%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협정 발효 이후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가 대폭 철폐된다. 니혼게이샤(日本經濟)신문은 “협정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최종적으로 일본 공산품의 99.9%, 농수산물의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PTPP는 당초 TPP라는 이름으로 당초 중국 견제 의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표류하다 일본 등 11개국이 지난 3월 내용을 일부 수정해 협정을 맺었다.

2019년 1월 미국과의 양자 무

역협상인 물품무역협정(TAG)논의를 시작하는 일본으로선 CPTPP의 수준이 시장개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기 발효를 서둘러 왔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는 아세안+3

한국정부가 2019년에 반드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15년부터 거의 해마다 '타결 임박'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참여국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에 참여하는 16개국 정상들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올해 RCEP 협상이 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018년에 RCEP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타결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 생긴다.

RCEP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참여국간 수준 차이다. 국민 개발도상국부터 한, 중, 일 같은 경제 대국까지 산업 규모부터 통상 규범이 천지 차이인 16개국이 모여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처럼 다자협상을 추진할 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주도 국가도 없다. 통크게 먼저 개방 문호를 넓히는 주도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16개국마다 서로 민감한 품목을 조정하는 작업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특히 기존에 양자 FTA 등 시

장개방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 무역수지 만성적자 국가들이 걸림돌이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RCEP 참여국가들 중 시장이 큰 한, 중, 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서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

인도는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RCEP 타결 선언에 대한 정치적 판단 문제도 남아있다. ICT부문 등 많은 산업인력의 수출을 원하는 인도는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따기 전까지는 RCEP 타결을 선언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RCEP을 주도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현재 상황을 '실질적 타결'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

현재 총 20개 챗터 중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등 7개 챗터가 타결된 상태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마지막 13개 관문이 남아있다.

상품은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합의했으며, 서비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미 체결된 FTA들에 비해 높은 개방수준을 달성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0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국내 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체결시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간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0년간 114억~195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

www.rlcindonesia.com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보세창고 20년의 역사, **RLC**가 한발 더 나아갑니다

인니 물류의 대명사
짐모아가 함께 합니다!

WE DELIVER
EVERYTHING, EVERYWHERE!

EXPERT IN TRANSPORTATION

ZIMMOAH

무역 통합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창고 20년 역사의 RLC가 그 동안 축적된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업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업무는 물론 해외 및 국내외 물류, 산업 원부자재 구매 및 판매대행, 통관 등 각종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산업 원부자재 구매 대행

보세창고 무역대행 구매 통관·배송 재고관리 지사업무

CERHET ISO 9001 WCA SAMSUNG LG SanKen Panasonic

담당 : 부장 최기락
MP : +(62) 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2018년 경제 10대 뉴스

● 98년 외환위기에이후 15,000루피아화대로 추락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1998년 외환이후 21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2018년 9월 3일 장중 한때 달러당 1만 4천900루피아로 떨어져 1997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루피아화는 15,200루피아까지 폭락을 이어갔다. 이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루피아화가 폭락하자 자카르타 시내 미니체인저에는 달러를 사고 팔려는 손님들로 아우성쳤다. 한편, 루피아화 가치는 2018년 하반기 들어 8% 이상 급락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거듭 인상하고 80조 루피아(약 6조원) 상당의 국

채를 매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루피아화 약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중국발 경제 위기는 대(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에 이미 옮겨 붙었다. 우선 중국과의 원자재 교역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는 당장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대중 수출의존도가 10%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의 수요가 줄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8년 7월엔 -19.2%를 기록했다. 실물경제와 투자여건

이 악화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경상수지 적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8월 말 기준 외화보유액이 1천 53억 5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I는 정부의 대외부채 지급으로 인해 외화 수요가 증가했고 자국통화인 루피아화 가치 안정을 위해 외화보유액을 사용함에 따라 외화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루피아화 추락막기 외환보유고 유지 안간힘

통화까지 급락으로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영기업들이 최소 11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외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와 광산업체 이날룸(Inalum)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주부터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와 재무부도 연말께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페르타미나는 20억달러, 이날룸은 4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PLN과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각각 20억달러와 3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여

파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추락하는 가운데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지표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5.27%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지만, 올해 초 달러당 1만3천300루피아 내외였던 자카르타 은행 간 현물 달러 환율(JISDOR)은 달러당 1만5천208루피아까지 상승했다. 달러화 대비 가치가 연초보다 10% 이상 낮아져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1.50%포인트 인상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섰지만, 루피아화 약세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루피아화 강화 단기정책 실패했다? 정부는 루피아화 강화를 위한 단기 정책을 만들었다고 Kompas 신문은 지난 2018년 10월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BI)은 경제성장 5%대와 인플레이션 3%를 유지하기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수출업체에게 금융대출과 수입업체에게 1,147품목에 대한 수입세(PPI Pasal 22)를 인상했다. 지난해 24분기 달러 외환 수요가 많이 발생해 경상적자가 생겼고 이는 총국가 생산의 3.04%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루피아화 가치 붕괴를 개선하기 위해 9월 6일 긴급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수입세 인상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이다. 이 재무부 장관령을 보면 정부는 수입 소득세(PPh 22 Impor)에 세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수입세가 인상된 상품은 1,147개 종류다. 이에 대해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1,147개 종류의 상품 수입세를 인상에 수입품이 2%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 환율위기에 인프라 건설 재검토 취소 잇달아

국가 인프라 추진위원회(이하 KPPIP)는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264조 루피아 규모의 국가 인프라 사업 14건을 철회할 것을 받아들였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4월18일 보도했다. 초기 245개 프로젝트 중에서 222개 프로젝트를 PSN목록에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이중 10개 프로젝트는 2017년에 이미 가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에서 위원회는 또한 하나의 추가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2019년에 정부가 완료해야 할 프로그램은 총 3건이 된다. 이로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투자 가치는 약 4,000조 루피아에 도달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14개의 취

소된 프로젝트들은 2019년 3/4분기에 시작하게 될 플랜이었지만, KPPIP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아 취소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또한 투자자와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추진 타당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PSN 추진 프로젝트에서 취소된 14개 프로젝트 목록〉

- 동부 자바 Waru (Aloha) ▯ Wonokromo ▯ Tanjung Perak 유료도로
- 서부자바 Sukabumi ▯ Ciranjang ▯ Padalarang 유료도로
- 남부 수마트라 Kertapati ▯ Simpang ▯ Tanjung Api-Api 철도공사
- 남부 수마트라와 Bengkulu

의 Muara Enim ▯ Pulau Baai 철도공사

- 남부 수마트라 Tanjung Enim ▯ Tanjung Api-Api 철도공사
- 잠비 및 리아우 지역 Jambi ▯ Pekanbaru 철도공사
- 잠비와 남부 수마트라 Jambi ▯ Palembang 철도공사
- 동부 갈리만탄 철도공사
- 자카르타 East-West Mass Rapid Transit 공사
- 북부 갈리만탄 Sebatik 공항
- 북부 갈리만탄 정수프로젝트
- 발리 Telaga Waja 댐 공사
- 남부 솔라웨시 Pelosika 댐 공사
- 파푸아 Merauke 특별 경제 지구

● 인도네시아 경제 최고 영향력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달러당 루피아화는 15,200루피아에서 14,500루피아대로 확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 메이카르타 아파트 청약피해..인허가 비리적발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지난 2018년 10월 14일과 15일 버가시군 짜카랑 지역에 위치한 메이카르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버가시군 정부 공직자와 리본그룹 임원 등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KPK 담당자는 “부패 혐의자들은 20일간 구속된다”고 말했다. 이날 버가시군 공무원과 리본 그룹 임원은 자카르타 남부경찰서, 동부 경찰서, 중부 경찰서로 각각 분리해서 송치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KPK는 리본그룹 Billy Sindoro 이사와 버가시군수인 Neneng Hassanah Yasin 군수를 체포하고 KPK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Neneng Hassanah Yasin 군수는 메이카르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은 130억 루피아로 이 가운데 70억 루피아를 받았으며, 체포당시 15억 루피아 현금을 압수했다. 짜카랑에 위치한 메이카르타 아파트는 건축허가 문제로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IMF, 인도네시아에 5가지 충고는?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가파른 절하가 계속되자 IMF 당국이 나섰다. 20년 동안 유지되던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5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루피아 환율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0월 4일 중앙은행 BOI 발간한 “Realizing Indonesia’s Economic Potential”라는 출판

KPK는 리본그룹 임원이 버가시군 공직자에게 메이카르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해 10월 19일자 콤파스 신문은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지난 18일 메이카르타 아파트 지구개발과 아파트 건축허가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리본그룹의 제임스 라이디(James Riady) 대표 자택을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리본그룹의 제임스 라이디(James Riady)의 자택수색은 전날 체포된 리본그룹의 임원과 버가시군수,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은 뇌물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 시행됐다.

한편, 메이카르타 아파트 지구개발과 아파트 건축허가 뇌물사건으로 아파트 청약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있는 3425명 메이카르타 아파트 청약자들은 선불을 다 지불하거나 매월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리본그룹은 1990년에 설립되었

다. Lippo Karawaci와 Lippo Cikarang 주택지와 공단을 건설했다. 주택지로는 Lippo Village, Lippo Thamrin, ST Moritz Penhaouse 주택지, Park View Apartement, Nine Residence 주택지를 건설했다. 이후 리본그룹은 계열사인 PT Maahkota Sentosa Utama (PT MSU)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요 신문과 TV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로 메이카르타 프로젝트를 광고해서 청약자 10만명을 모았다고 자체 홍보해 큰 이슈가 되었다. 2017년 5월에 메이카르타 아파트 지구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당시 메이카르타 아파트 지구 최고 경영자인 Ketut Budi Wijaya에 따르면 “첫단계에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78조 루피아를 투자하며 40%는 회사의 자금이고 60%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초기부터 인허가와 자금 문제로 뒷소문이 무성했다고 전했으며, 메이카르타 광고대행사는 광고비를 완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9년 최저임금 8.03% 인상... 자카르타주 3,940,972루피아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5일 2019년 최저임금 기준안을 8.03%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최저 임금인상은 노동부 장관령(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8,240/M-Nake/PHI9SK-Upah/X2018)으로 공식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계산을 근거로 정해졌다고 주요언론은 지

난 10월 16일 보도했다. 2019년 최저 임금인상을 정하기 위한 2018년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은 중앙통계청(BPS)이 작성했다. 노동부가 15일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발표하기 전 10월 4일 중앙통계청은 노동부 장관에게 공문서(Nomor B-216/BPS/1000/10/2018)를 보내 “2018년 인플레이션율은 2.88%

이며 경제성장률은 5.15%”라고 알리며, “이는 최저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고 적었다. 이에 노동부는 주단위 최저임금(UMP-Upah Minimum Provinsi)과 시군단위 최저임금(UMK)를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8.71%으로 2019년 8.03%를 적용하면 2019년 자카르타주 최저임금은 394만 972루피아가 된다.

● 2018 Jabodetabek 수도권 교통망 발표

2018년 자카르타 통합교통지도 나왔다. 2018년초부터 자카르타는 수도권 교통 광역시스템 적용으로 대규모 교통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자카르타는 늘어나는 국제공항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 및 경전철(LRT)과 도시전철(MRT)등 연 이은 공사로서 전체가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는 중이다. 자카르타가 지옥 같은 교통체증에서 시민들을 자유롭게 할 꿈만 같은 새로운 미래

교통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화제다. 자카르타 광역교통 토론포럼(FDTJ)이라는 단체가 다양한 대중 교통 수단으로 구성된 통합교통지도를 약 5주에 걸쳐 완료했다. 이 지도에는 105개의 Transjakarta 노선, 7개의 통근노선, 장거리 열차 및 Soekarno-Hatta 국제 공항 Skytrain이 연결된다. 이 지도는 FDTJ를 공동 창립한 공간계획 및 개발 전문가 Adriansyah Yasin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제 LRT와 MRT지도를 추가노선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7월에 업데이트된 통합 교통지도에는 가장 가까운 Transjakarta 정류장 버스 정류장, 공휴일의 Transjakarta 버스 경로, 도시의 명소 및 기차역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사이의 예상 보행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거미줄처럼 엮인 수도권 전철 지도를 인도네시아에서도 볼 일이 머지않았다.

● 인도네시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희망

지난해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서명되자 인도네시아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 발효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세계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시대가 탄생한 것이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1차 회원국들은 즉시 관세를 인하했다. 일본은 수입 쇠고기 관세를 기존 38.5%에서 27.5%로 낮췄으며, 4월에는 26.7%로 추가 인하한다. 캐나다

도 수입차 관세를 6.1%에서 5.5%로 인하하며, 5년차에 최종 철폐할 계획이다. 호주도 수입차 관세를 즉시 없앴으며, 베트남도 70%에 이르는 자동차 관세를 10여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CPTPP의 전신은 2016년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도 수입차 관세를 6.1%에서 5.5%로 인하하며, 5년차에 최종 철폐할 계획이다. 호주도 수입차 관세를 즉시 없앴으며, 베트남도 70%에 이르는 자동차 관세를 10여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CPTPP의 전신은 2016년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 대기업 진출 온라인 상거래 급증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현재 약 1억명,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자는 6,500만명, 전자상거래 사용자는 인터넷의 30%인 2,800만명에 달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근간인 결제시스템과 물류가 취약한 게 큰 걸림돌이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는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 등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고,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는 고무적이다. 이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매출이 56억 달러에 달했고, 앞으로 연평균 20%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 2020년에는 12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및 구독 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PT.Hannahpress Indonesia

Tel: 021-4586-9198-9,

HP. 0812-1004-999 (카톡이디디 haninpost)

e-Mail: haninpost@gmail.com

www.haninpost.com

동부자바 한인회장에 이경윤 대표 취임

2019년 동부자바 한인회장에 이경윤 부회장이 바턴을 이어 받았다. 지난 12월 14일 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한인회는 수라바야 시내 임페리얼 볼룸에서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춘식 한인회장
은 이경운 부회장에게 동부자바
한인회 깃발을 인계했다.

이날 한인 송년의밤 행사를 겸한 한인회장 이취임식에는 대서관 김종민 총영사를 비롯한 지역 한인동포의 참여 속에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글 및 한국 문화를 배우는 인도네시아인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한글학교 보조 교사도 자원 봉사한 한인학생들에게 한인회장상을, 한글학교에서 오래 봉사한 한글학교 선생님에게는 대한민국 대상을 수여했다.

2부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해군 군악대를 초청해 한국 노래 등 공연이 진행 되었으며, 어머니합창단, 동포자녀들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 유치부 어린이 30여 명의 발랄한 노래와 율동 공연,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이뤄졌다. 3부 행사는 동포 노래 자판 대회 및 시상과 다양한 행운권 추첨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동포사회부>



<지난 12월 14일 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한인회는 수라바야 시내 임페리얼 호텔에서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배춘식 한인회장(오른쪽)이 이경윤 부회장에게 동부자바한인회 깃발을 인계하고 있다.>



<동포자녀 유치부 어린이 30여명이 발랄한 노래와 율동 공연, K-POP 커버댄스로 동부자바 한인회 송년의밤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가 꽃이었구나' 인문창자클럽 웹진 2호 출판

인문창작클럽(회장 이강현)은 2017년 웹진 1호 "읽고 나누고 쓰다"를 발간한 데 이어 2018년 12월 15일(토) 웹진 2호 "우리가 꽃이었구나"의 출간기념 낭독회를 가졌다. 웹진 2호는 '인도네시아의 어느 곳', '자카르타의 어느 곳',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사람' 등 계절별 테마에 따라 회원들의 시와 수필, 포토 에세이를 수록했고 번역가 출신이 임박한 네덜란드 고전소설 '막스 하벨라르'에 대한 특집도 담았다.

이날 출판기념 낭독회는 인문 창작클럽(이하 '인작')의 송년모임을 겸해 김의용 건축학 교수(인작 부회장)의 뽀독 배낭 사육을 빌려 저녁 5시부터 인작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과와 음료를 갖추 치러졌다. 지난 9월 발간된 매대선 작가의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가 현대사> 출판 축하도 곁들였다.

이날 이강현 회장은 2019년에



는 인작이 모두에게 더욱 편안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을 송년사로 밝혔고 새해 1월 귀
국하는 박준영 회원은 중국민중
들을 문학으로 각성시킨 작가 루
쉰처럼 인작도 자카르타 한인사
회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존재로
서의 역할을 기원했다.

인작은 20명의 회원 중 일부 귀국자들이 있어 회원총원과 재정비를 거친 후 새해 1월부터 3

기 활동을 시작한다.

인작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문인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달 관심분야 또는 전문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정해 발표와 토의를 나누는 모임으로 테일리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 경제신문 등 교민매체에 매주 회원컬럼을 기고하고 인도네시아 한인교민사회 문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원, '어느 멋진 날' 2018 송년 잔치열어

세종학당·문화강좌 종강식...12월 문화가 있는 날 ‘김장 체험 행사’
천영평 원장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여러분은 문화원의 자랑”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연말을 맞아 12월 22일(토) 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세종학당·문화강화과 종강식 및 발표회와 12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김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영화 <좋아해줘> 공동관람, 종강식 및 문화강화과 수강생 작품 발표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셰프'와 함께하는 김장제철행사로 구성됐다.

1부 영화〈줄아해줘〉영화 공동관람에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인 종강식에서 2018년도 하반기 수업을 졸업하는 세종학당과 문화강좌반 학생들은 몇 달 동안 열심히 들은 수업을 마치며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문화원 주최·한식협회 주관으로 사전등록을 통해 등록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장체험행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쥔 셰프'가 일일 체험



강사로 등장에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재료다듬기, 양념 배합, 김치 소 만들기, 양념 묻히기 등 전 과정을 눈으로 담으며 열심히 따라했으며, 준 셰프도 참가자들에게 아주 잘 따라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체험 종료 후 참가자들은 문화원에서 연말을 맞이해 준비한 맛있는 한국음식을 먹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천영평 문화원장은 축사를 통

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하는 여러분은 문화원의 자랑이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국과 문화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김장문화를 이변 체험행사를 통해 주제국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원은 2019년도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부>

2018 한국어 말하기 & 별별스타 왕중왕 선발

말하기 우승 -하리자 리즈키아 “나와 장애인 친구들”
별별스타 우승-반자르마신 ‘힐류(Hilyu)’ 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12.15.(토) Neo Soho 쇼핑몰의 Neo Atrium에서 ‘한국어말하기대회’ 온라인 예선을 통해 결승에 진출한 10명과, 다양한 한국 장기를 겨루는 ‘별별스타’ 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참가자 9 팀을 초청하여 연말 왕중왕전을 치렀다.

이번 대회는 연말 왕중왕전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 480여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 인산인해를 이룬 와중에 진행되었다.

한국어말하기대회는 11월말
~12월초 온라인을 통해 “내가 만
일 문화대사라면 한국과 인도네
시아를 위해 하고 싶은 일”과 “
대한민국에 바란다” 두 개 주제
중 한 가지를 택일해 예선전에
접수한 46명중 심사를 통해 10명
만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별별스타 결승전도 2018년 동
안 문화원이 수라바야, 땅그랑,
바탐, 팔렘방, 만자르마신, 자
보데벡(자카르타·보고르·데
폭·버카시) 등지에서 개최한 자

역 예선전 우승자 9팀만이 참석하여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다.

제1회 한국어말하기대회 우승자는 하리자 리즈키아(Haria Rizkia)참가자로 “나와 장애인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일등을 차지해 한국-인도네시아 왕복 항공권과 항공권을 수상했다.

별별스타 왕중왕전 참가자중에서 우승은 아름다운 부채춤을 보여준 반자르마신 지역에서 참가한 ‘힐류(Hilyu)’팀에 돌아갔다.

PT. HD FORKLIFT INDONESIA

Authorized Distributor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Website : www.hyundai-ce.com

MOVING YOU FURTHER

ALL NEW CHANGE, HYUNDAI 7SA SERIES

현대지게차 아시아 타입 경제형 모델 전격출시 !!!!

- 2톤, 2.5톤, 3톤, 3.5톤 - 디젤, 듀얼타입(가솔린/LPG)

- ▶ **Economic Price** : 저렴한 가격
- ▶ **High Quality** : 고품질 유지
- ▶ **Baru Service** : 검증된 무상방문 서비스 since 2013
- ▶ **현대지게차 영구 사용시 까지 매2개월 마다 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

Diesel / Gasoline Type
1.5 - 2.5ton : 60 Models
Mast Height : Max. 7m

LPG/Gasoline Dual Type
1.5 - 7ton : 25 Models
Mast Height : Max. 6m

Battery Reach (Seat Type)
1.4 - 2.5ton : 4 Models
Mast Height : Max. 12m

Battery Reach (Stand Type)
1.5 - 2.5ton : 7 Models
Mast Height : Max. 7.5m

Battery C/Balance Type
1.6 - 5ton : 11 Models
Mast Height : Max. 6m

Marketing PIC : Ms. Ayu (0812 9597 2720)
After Service PIC : Ms. Siti (0813-3307-7913)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2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매월 1회 무상정기점검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무상보장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Free Rental

납기지연, 부품지연시 무상렌탈

구형지게차 매입서비스

■ PUSAT : J. Raya Kalapa Hlride Tipe Olive A Blok G05 No. F 06 Rukan Grand Orchard-Kalapa Gading. ☎ 021-2961-6497, (Mail) : hyundibagus@gmail.com ■ Surabaya Cabang : J. Kartajaya No. 214, Surabaya, EAST JAVA (Marketing PIC, Mr. Yanto Prianto ☎ 031-503-9998, (Mail) : salerly@hotmail.com ■ Bandung Cabang : J. Champelva No.6 Bandung, WEST JAVA, 40116 (Marketing PIC, Mr.Ru ☎ 022-42655022-426-5819, (Mail) : daripany@hyundai.co.id

2018년 사회 10대 뉴스

● 지진쓰나미 화산...실새없는 자연재해

인도네시아가 지진과 화산 그리고 쓰나미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일년 내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술라웨시 중부섬에 7.5 규모 강진과 쓰나미가 덮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부 술라웨시에서 강진과 쓰나미로 사망자가 2200여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참사원인이 쓰나미 탐지·경고 시스템 미비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지진 발생 즉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지만 34분 후에 해제했다. 그러나 쓰나미는 경보가 해제된 뒤 해안가를 덮쳤다. 당시 PALU 해변에는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인파 수백명이 몰려 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PALU 시내가 18km에 이르는 협만의 끝에 자리 잡은 것도 문제였다. 쓰나미가 좁은 해로를 따라 팔루 시내로 접근하며 규모를 키운 것이다. 과학자들은 PALU에 쓰나미가 발생한 것 자체가 놀랍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구 물리학자인 제인슨 패튼 홀볼트주립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주향이동단층(Strike-slip fault)에 위치한 술라웨시 섬에서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의외”라며 “강진이 반드시 이변처럼 파괴적

인 쓰나미를 만들어내진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즈 컴포트 피츠버그대 교수는 “인도네시아에 지진해일 탐지용 22개 센서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대응 체계가 무너진 상태”고 지적했다. 롬복섬은 지난 7월 29일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회부 당국자는 8월 25일 기준으로 롬복 섬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5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롬복섬에는 하루에도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여러차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월 23일에 6.1 규모 지진이 일어나 자카르타, 반텐, 서부자와와 진동하자 고층 아파트나 건물에 있던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 잡혔다. 나스탤랑 출신 합다니 국회의원의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시간에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는 중이었으며 국회의사당이 흔들려 공포에 사로 잡혀서 서둘러 내려와 밖으로 나갔으며 또 다시 회의를 하면서 중부 깔리만탄으로 수도이전을 집중 토론했다고 전했다.

● 라이언에어 이륙10분만에 추락 189명 전원 사망

라이언항공 JT610기가 10월 29일 오전 6시 20분 자카르타 근교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이륙한 지 10분만에 서부자와 가라왕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항공기는 이날 아침 자카르타에서 목적지 방갈피낭을 향했으며 탑승자는 189명으로 승객 179명과 승무원 7명 아이 1명 어린이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이 속보로 전하고 있다.

또한 사고기에는 재무부 소속 공무원 20명이 출장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 라이온항공 JT-610기는 오전 6시 22분에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출발하여 2500~3000m 고도에서 연락이 끊어졌으며, 서부자와 가라왕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발생이후 국립재난구조단과 응급구조단은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해 Karawang의 탄중방인 (Tanjung Bungin) 해안에서 북쪽으로 7마일 떨어진 수심

30~35m에서 잔해와 블랙박스를 발견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C)는 라이언 JT 610 사고 항공기는 Boeing 737 Max 8 aircraft로 비행 시간이 800시간에 올 8월부터 사용한 신형 항공기라고 밝혔다.

또한 지질기후기상청 BMKG도 “오늘 자카르타 Ⅱ 뺑갈피낭(Jakarta-Pangkal Pinang) 노선의 날씨는 양호했다”면서 “비행기가 비행하기 좋은 날씨로 기상 조건은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 현지 언론은 사고기 기장이 이륙직후 자카르타로 되돌아가겠다고 말했다며 전했다. 라이온 항공측도 이륙전에 사고 항공기에 이상을 발견하고 수리이후에 출항을 승인했다고 발표해 기체결함과 항공사 관리사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라이온항공 JT-610기 추락원인을 조사중이다.

● 르바란 휴가 1,950만명 이동 교통사고로 454명 사망 감소세

2018 라마단 금식 이후 르바란 휴가 기간에 고향을 방문한 인구는 1,9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교통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30%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군경의 르바란 안전수송 고폭밭(Ketupat) 작전 기간인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1,921건이 발생하여 454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 기간 2017년 르바란 기간에는 2,7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83명이 사망해 전년 도보다 30%가 감소했다.

교통부 르바란 특별본부는 “르바란 교통사고의 감소는 약 30%에 해당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치이며,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Mohammad Iqbal 홍보 담당관은 “2018년 르바란은 실제적으로 6월 7일에서 6월 24일까지로 18일간이었으며, 관공서 요원 총 177명, 군인과 경찰은 3,097명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경찰국 대변인은 이러한 교통

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는 새롭게 운행을 가동한 유료도로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르바란 귀경길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르바란 휴가 초기 하리라야 3일 전(H-3일)까지 집계된 교통사고가 771건으로 지난해 1,117건에 비해 19% 하락했다. 그리고 이 기간 내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통계수치는 163명으로 지난해의 41% 감소했지만 총 교통량은 27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토바호수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로 208명이 실종한 수치와 각종 선박사고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포함하면 650여명이 이를 것으로 보여, 르바란 안전사고에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르바란 기간의 교통사고 총 건수의 70%가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한 운전자가 차지하고 있다.

● 학자,자와섬과 순다해협 강진경고

지난 4월3일 해안 역학기술 평가기관(BPPT) 회의에서 쓰나미 Widjo Kongko 전문관은 서부자와 반텐에 위치한 Pandeglang 지역에서 초대형 파괴 57m 쓰나미 가능성을 예측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위드조 전문관은 “쓰나미는 자카르타 북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닥쳐올 쓰나미 재앙 예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초기 예측”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Widjo 쓰나미 전문관은 “남부 자와와 순다 해협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반텐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 쓰나미 예측은 얇은 심해에서 리히터 규모

9로 큰 쓰나미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조 전문관은 “서부 자와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 진도 8.8에서 9도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7도 이상 크기의 얇은 심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에도 쓰나미가 Pandeglang 지역을 덮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Widjo쓰나미 전문관을 비롯한 이 분야 최고 연구소인 LIPI 연구원 Danny Hilmam Natawidjaya, ITB 연구원 Irwan Meilano, 기상학 및 지구 물리학 연구소 Imam Suardi 연구원과 함께 서부자와의 지진과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심층 토론했다.

●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부정부패 사건

전자주민등록증 (KTP Elektronik)은 세피아노판도 전 국회의장을 감옥에 가두게 했다.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부정 부패사건은 오래동안 국가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부정부패사건인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부정 부패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세피아노판도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인사가 연루되어 수감되었다.

예산 5조 9,000억 루피아 가운

데 2조 3,000억 루피아가 불법 전용되었으며 세피아노판도는 미화 3,800만 달러와 싱가포르화 383,040달러를 받았다.

지난 4월 24일 세피아노판도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재판소에서 15년 징역형과 5억 루피아 벌금형을 판결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 KPK는 2018년내 지방의원 88명과 지방자치 단체장 2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항공기 사고 아시아권 최대 최고 국가 오명

라이언에어 항공 JT -610기가 추락 사고로 탑승객 189명 전원이 사망하자 항공안전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최대 항공기 추락사고 국가”라고 전했다.

항공안전네트워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945년부터 2018년까지 73년동안 치명적인 항공기추락사고가 99번 발생해 2,224명이 사망했다”고 Kompas 신문은 지난 11월 1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는 치명

적인 항공기 추락사고가 93번으로 발생해 2,329명이 최다 사망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 이어 중국은 75번 사고로 1,774명이 사망, 필리핀은 60번 사고로 866명 사망, 카자흐스탄은 42번 사고로 73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운송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는 67.1%가 항공기 안전오류로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 자카르타 훌쩍제 교통정체

자카르타 거주자는 훌쩍제로 인한 자가용 차량이용 불편이 2019년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자카르타 주 정부는 아시안게임 기간 시행된 훌쩍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교통국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기간 적용된 훌쩍제 단속 시간은 15시간에서 출퇴근 시간 즉, 오전에는 06시에서 10시, 오후에는 16시에서 20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훌쩍제를 단속하지 않는다. 아시안 게임 교통 체증을 대비하기 위한 확장 차량 훌쩍제가 실시된 지 2주째에 자카르타 교통국은 수도권 교통 체증이 16% 줄어들었고, 차량 속도는 12.14% 빨라졌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교통국 의회 산하 집행의원인 부디안토(Budiyanto)는 훌쩍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안 게임에서 교통문제를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훌쩍제 확장 시행은 차량 속도 증가와 체증 감소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도 높아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트랜스 버스 이용자는 11.5% 늘었고, PPD는 14%, 그리고 트랜스 자카르타는 9.86%로 그 이용자 수가 늘었다. 자카르타 일부 도로에서 시행하는 훌쩍제가 대기 오염 감소에 효과적이다. 부디안토 의



원은 또 다른 훌쩍제 확장의 영향은 일일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량이 52,000톤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아시안 게임기간동안 자카르타 환경국이 목표로 한 수치이다.

하지만 훌쩍제 지역 상가주민들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상가주민들과 대형 쇼핑몰에 입주한 상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없는데 훌쩍제 시간은 아예 문을 닫을 지경이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협회(Gaikindo)는 올해 1/4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619,212대에서 661,215대로 6.35% 증가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8월26일 보도했다.

협회는 7월 판매량은 107,431대로 지난해에 비해 20.54% 증가했다고 밝혔다. PT Toyota-Astra Motors사는 Rush의 7월 생산량만해도 전월에 비해 5,000대에서 7,000대로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며 다른 모델인 Voxy 나 Alphard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4강 신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인도네시아는 금메달 31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43개 총 메달 98개로 파나 4위를 일궈냈다.

지난 9월2일 저녁 2018 아시안 게임 경기가 열리던 글로라봉카르노 주경기장에서 폐막식 조명이 주경기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인도네시아 신문과 방송들은 아시안게임 중반부터 9월 2일 폐막 이후에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별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자카르타 시민들은 지난 9월 2일 폐막식장에서 “인도네시아 4위 성적표에 2억 6천만 인도네시아 국민이 더 놀라고 있다”고 환호성을 쳤다.

2018아시안게임 인도네시아 성공개최 판정은 인프라 건설, 시스템 운영, 각종 안전사고 그리고 국민적 성취감으로 정리되는 데, 개최국이나 참가국은 모두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 성공개최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 데벙과 수라바야 연쇄테러 외국인 사회 불안감 커



자카르타 근교 데벙 경찰기동대 구치소에서 테러범 폭동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제2수도 수라바야 교회와 성당 등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해 외국인 사회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테러범과 수감자들은 자카르타 경찰기동대본부 구치소에서 3일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5명 경찰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투항하며 진압됐으나 테러범들은 다음 날 수라바야에서 5월 13일 일요일 주일예배를 노려 교회와 성당에서 자폭 테러했다.

수라바야 예배테러 사건은 일요일 4차 연쇄 폭탄테러로 16명 사망이 사망하고 25명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쇄테러로 수라바야 경찰은 “수라바야 모든 교회는 문을 닫고 도시에서 계획 되었던 대규모 음식축제를 취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카르타 경찰청은 오후에 자카르타 주정부에 1급 경계령이 발령하자 수도권과 발리 그리고 스마랑까지 경계령을 확대

아시안 게임 취재자 방문한 외국 기자단도 “개최국 인도네시아는 스포츠 강국 틈새에서 4위 성적표를 국제적으로 제출해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다”면서 “이는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 아시아 4강으로 강대국을 향한 도전에 2억 6천만 국민이 자심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안게임에 34조 루피아를 투자했지만 남은 장사를 한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4위 성적표에 올림픽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1일 “인도네시아는 2032년 올림픽 개최국 후보에 바로 등록할 계획”이라며 “제18회 아시안게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더 큰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했다. 자카르타경찰청은 수라바야 테러로 인해 자카르타 지역에 1급 경계령(Surat Telegram Kapolda Metro Jaya Nomor: STR/817/VPAM.3.3./2018 pada Minggu)를 각 경찰서에 전송했다

일요일 인도네시아를 테러공포로 몰아넣은 테러범은 일가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Dika Supriyanto 가족은 지난 시리아 IS 인도네시아 대원 일가족으로 이번 자폭테러를 벌였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로 귀환한 500여 IS대원 가운데 하나로 밝혀져 IS대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슬람최대단체인 NU(Nahdlatul Ulama)지부도 수라바야 테러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무함마디야 이슬람단체도 폭탄테러를 규탄한다고 전하며 폭탄테러는 종교와 인류존엄가치에 정면 도전한다며 교회 테러를 강력 규탄했다.

● 해외근로자 TKI 사형집행 인권침해

지난 2018년 3월과 10월 사우디 아라비아 성지 메카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참수형을 당했다. 참수형은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그 어떤 통지도 없이 시행된 것에 대해 나스탤랑 출신 수빠아딘 아리레스 사뿌뜨라 국회의원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강력하게 항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수형을 당한 인도네시아인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참형을 당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주를 살해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억지로 자백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규정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 당국이 외국인을 참수형을 하기 전에 해당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아무런 공고를 주지 않았다. 이에 유슬갈라부통령은 “이것은 살인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사건관련을 확인하라



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참수된 인도네시아인은 총 5명으로 안디 이리얀파 (여), 푸야피(여), 시리 자이난 (여), 까르니 (여), 그리고 자이니 미스린 (남)이다. 이들은 모두 본국에 통지없이 참수형을 받았다. 한편 아직 사우디아라비아 내 21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참수형을 앞두고 있다.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다해협 쓰나미 취재탐방

어느덧 한 주 한 주 주간뉴스를 진행하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KTV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뻘데글랑(Pandeglang) 군 안예르(Anyer) 비치 및 짜리따(Carita) 비치, 그리고 탄중 레송(Tg. Lesung) 리조트에 밀어 닥친 쓰나미 소식을 전해드리고 금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취재하고 느끼고 본 바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주 저는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뻘데글랑(Pandeglang), 짜리따(Carita) 해변 쓰나미 현장을 KBS 방목 특파원과 함께 다녀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들어가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쓰나미 피해 현장으로 가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알리사 리조트(Allisa Resort)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무서워서 나오질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안예르(Anyer)

비치까지 내려 갔지만 거기도 역시 쓰나미 피해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게와 호텔, 그리고 리조트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문을 닫고 있어 아주 한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갈수록 늘어...쓰나미 원인은

어째든 쓰나미는 지나가고 인도네시아 지질기상청은 12월 25일 아침 공식적인 쓰나미 피해 집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망자 429명과 실종자 154명으로 1,459명이나 되고 이재민은 5,665명, 그리고 가옥 882채, 호텔과 빌라 73채, 가게 60채 그리고 어선 434척이 파괴되거나 파손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마을은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 보이고 현지 클리닉과 보건소 앞엔 부상자 치료를 위해 수많은 이재민과 관계자들이 들락 거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나 관공서에는 이재민 구호물품을 나눠주기 위해 무슨 물건인지 가득 쌓아놓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저 끄라까타우(Krakatau) 화산이 터져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들은 아낙 끄라까타우(Krakatau) 화산이 터지면서 경사면 산사태가 발생하

는 바람에 해저에 흙이 쌓이고 바닷물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큰 파도를 생성시켰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사고 당일 밤 주민과 관광객은 해변에서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저 건너 바다 한 가운데서 장대 같은 불꽃을 뿜어내는 화산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칸 바까르(Ikan Bakar)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안예르(Anyer)로 가기 전 한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던 한국인 방문객들은 맨발로 리조트를 뛰쳐나와 고지대로 피신했다.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알리사 호텔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님다는 보도와 함께 연말 예약 손님들이 모두 예약을 취소해 해왔다고 합니다.

포스코(POSCO) 제철소



글. 한상재/칼럼리스트

와 롯데 케미칼(LOTTE CHEMICAL) 단지 무사해

한편, 쓰나미 발생지에서 가까운 포스코(POSCO) 제철소와 롯데 케미칼(LOTTE CHEMICAL) 건설 예정지도 이상하리만치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풍과 조류가 해안선과 직각으로 흐르지 않고 비스듬히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안예르(Anyer)와 짜리따(Carita) 해변, 그리고 탄중 레송(Tg. Lesung)에 밀어닥친 쓰나미 취재를 마쳤습니다.

팜유(CPO) 옥탄가 90 출시

빠르파미나 인도네시아 석유평사가 팜유(CPO)를 가지고 옥탄가 90짜리 연료를 생산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황 함량이 낮은 친환경 CPO 가솔린과 가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단지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맥시멈(Max) 20%까지만 디젤유에 혼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솔린과 가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옥탄가가 90인 것이 문제인데 곧 92짜리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석유평사가 이 CPO 가솔린과 가스를 옥탄가(Octane) 92까지 끌어 올리게 된다면 하루 736천 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1억 6천 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까지 하루 380만 배럴의 원유



를 수입한 바 있고 지금도 하루 482만 배럴의 휘발유와 540만 톤의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CPO로 대체할 수 있다면 CPO도 증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인도네시아 CPO 생산량은 대략 4천 198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중 27%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15%만 연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식용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

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5%로 올려서 1천 380만 KL의 바이오디젤(Bio Diesel)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부 규정도 바뀌어 하겠지만 CPO를 가공하여 가솔린이나 가스, 혹은 바이오 디젤유를 제조하는 비용이 국제유가보다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셰일 가스(Shale Gas)보다 더 싸야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부 자카르타 Muara Baru에 현대식 어시장...불법어선 포박계속

최근 북부 자카르타 무아라 바루(Muara Baru)에 현대식 어시장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 Pasar Ikan Modern Muara Baru가 드디어 문을 열 시기만 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무아라 바루(Muara Baru) 어시장은 앞으로 자카르타 주부들이나 수산물 취급상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17일, 수시 뿌자스투피(Susi Pujastut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물부 장관은 2019년에도 외국 국적 해역 조업을 불허하는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하역에



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 488척을 나포하여 침몰시켜 버리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1,132척의 외국 어선을 나포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114척은 법적 절차를 밟

고 있는 중이며 975척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중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흠퍽제 2019년 연장실시

자카르타 시당국은 2018년 말까지 임시로 연장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흠퍽제도를 2019년 새해에도 계속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ERP 같은 새로운 교통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채 그대로 흠퍽제를 더 연장하거나 아예 이 제도를 고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아시안 게임 때 흠퍽제를 실시한 결과가 어땠냐는 질문에 66%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73.1%가 찬성을 하더라는 것인데 그 중에도 72.3%는 그냥 좋더라는 반응

을 보였지만 8.6%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교통당국은 적용 시간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출근 때 즉 06시부터 10시까지 적용하고 저녁 퇴근 때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흠퍽제를 실시할 것이냐를 옵션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적용도구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코

린도(Korindo) 빌딩 앞 사거리와 슬리피(Slipi) 사거리 같은 곳입니다.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으니까 수많은 자동차들이 교통경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 쟁가렝(Cengkareng) 공항을 갈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끝으로 2018년 마지막 회 인도네시아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탄중 레송 리조트(Tg Lesung Resort) 큰 피해

안예르(Anyer) 해변을 지나 조금 더 내려가니 짜리따(Carita) 해변의 한 농기계 전시장이 무너지고 그곳에 전시하고 있던 농기계들이 저 멀리 논바닥에 이리저리 나뒹굴고 자동차도 한 대 처박혀 있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진 집들의 잔해와 이리저리 뒤엎긴 농기계를 둘러보고 그 옆에 통째로 넘어진 집으로 가보니 거진 양계장이라 노란 병아리들이 뼈아빠악 소리를 내며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계장 주인과 두 아들은 먹이를 달라고 우는 병아리를 돌보기보다 납작하게 부쉘진 집을 이리저리 헤쳐가며 그래도 뭔가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짜리따(Carita) 해변을 뒤로하고 라부안(Labuan)으로 내려갔습니다. 라부안(Labuan)은 세랑(Serang)에서 뻘데글랑(Pandeglang) 캄뽕두리안(Kmp Durian) 마을을 지나서 탄중 레송(Tg Lesung)으로 내려가는 길목과 만나게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라부안(Labuan) 시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안예르(Anyer)처럼 그리 큰 피해는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구호품을 받는 포스코 반투안(POSKO Bantuan) 쓰나미 텐트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길은 친인척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사상자와 부상자를 실



어 나르는 앰블란스로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븐일레븐 그룹 사운드가 PLN 전력회사 직원들을 위한 공연을 하다 변을 당한 탄중 레송 리조트(Tg Lesung Resort)로 내려 갔습니다. 거기 도착해 보니 그 아름답던 리조트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조림 공장 폐업과 증산

콤포스 신문은 17일자에 북부 술라웨시 비통(Bitung)에 있는 통조림 공장 4곳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한 20일자 신문에 비통(Bitung) 통조림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 전해지고 있습니다.서로

상반된 기사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둘 기사 다 맞는 것 같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6개 공장 실적을 비교해 보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실제 4개의 공장이 원자재가 없어서 문

을 닫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배가 부족하면 당연히 고기가 될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는 어서 더 많은 어선을 더 건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플로산(Oplosan) 사망 사고는 지난 9월에도 15살 먹은 중학생 2명이 오펜로산(Oplosan) 술을 마시고 죽는 바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술을 사서 마시거나 특히 혼합주를 마셔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에 그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폐광하고 떠나 버린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 밖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바로 폐광에 고인 물이요. 그 폐광 웅덩이 물은 분석해 보면 납(Pb)이나 철분(Fe), 카드뮴(Cd) 등을 비롯한 중금속이 과다하게 녹아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폐광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아주 크고 깊은 호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벌써 고 웅덩이에 32명이나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광산 개발회사들은 원래 이 광구를 본래 모습대로 메우고 그 위에 산림으로 복원

First Media 자금난으로 주파수 대금 체납

인도네시아 First Media가 2017년과 2018년에 사용한 바 있는 2.3 GHz 주파수 대금을 내지 못해 정통부로부터 허가취소 통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First Media는 메이크르타(Meikarta)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LIPPO 그룹사의 하나이지만 자금난에 봉착해 주파수 허가를 반납해야 할 지경에 이

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뽀(LIPPO) 그룹은 정통부에 금년 말까지 미납금 중 일부를 내고 2019년에 2회 그리고 2020년에 2번 이렇게 분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리뽀(LIPPO)가 12월 말까지 미납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인터넷과 위성방송 네트워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석탄 폐광 웅덩이에 32명 익사

신문들은 석탄 발전소 환경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뉴스를 전해더니 이번엔 석탄을 개발하고 떠난 폐광의 위험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석탄 폐광 지역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은 우리나라와 달리 노천에 깔린 광맥을 파고 들어가는 일종의 노천광장이

제99회 전국체전 동포 선수단 해단식 열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종합 6위 차지



▲ 강희중 대한체육회장(왼쪽)이 인도네시아 체육회 선수단기를 이강현 선수단장으로 부터 돌려받고 있다.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인도네시아 동포선수단(단장 이강현)은 종합 6위로 선전하고 지난 12월 20일 셰라톤 자카르타(간다리아 시티)호텔에서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익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금메달 2개(볼링 남2인조, 여 5인조)와 은메달 3개(볼링 여2인조, 축구, 태권도여-48kg), 동메달 5개(볼링 남5인조, 스쿼시 여, 태권도 남-58kg, 남-80kg, 남+80kg)로 17개 참가국 중 6위로 선전했다.

이날 선수단 해단식에는 양영연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김종민 총영사, 한인사회의 각 분야의 단체장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강현 선수단장의 전국체전 결과 보고를 시작으

로 우수선수 시상과 감사패 공로패 시상 순으로 이어졌다. 금메달 수상자는 부상으로 USD3,000달러를 받았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은 “올해 체육회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전 종목을 지원했고, 우리 선수단의 경기마다 응원에 전력을 다했다. 10월초에 북한을 방문해 남북한 체육교류를 약속하고 돌아오니 느끼는 바가 크다”고 말하고 “건강한 한인 동포들의 삶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아시안게임 표창패, 공로패 시상식을 겸했다. 수상자로는 이창균 야구협 회장, 김태화 용무도협 회장, 방진학 태권도협 회장, 전용무 축구협 회장이 받았다. 감사장으로는 황의상 대표,

이순형 코린도 사무총장, 이동훈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받았다. 전국체전 최우수 지도자상에는 최문호 축구협 감독과 김송정 볼링협회장이 받았으며, 최우수 선수상에는 볼링 조환국 선수와 볼링 전인옥 선수가 받았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체육회의 솔선하는 모습은 많은 단체에 귀감이 되었고 감동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종민 총영사도 축사에서 “체육회 특유의 단결력으로 올해 많은 활약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2부 순서로 JIKS 브라스밴드 공연과 선수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이 펼쳐지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즐겼다. <동포사회부>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담아 모시겠습니다.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Indonesia
Tel. (021)515-2905
0855-105-1063

Kelapa Gading (MOI)
Ruko Mall of Indonesia, Blok B1-B2
Jl. Boulevard Barat Raya,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Tel. (021)4587-6626

SystemEver | 시스템에버 - Cloud ERP

모바일로 뉴스만 보십니까?

20여년 동안 ERP를 구축한 **솔아이티**와
1200여 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SystemEver**가 함께 합니다.

SystemEver가 모바일을 경영도구로 바꿔드립니다.

☒ 알림

☒ 업무/확정지시

☒ 정보공유

☒ 출장중 언제나

Contact: PT. SIT Global Systems HomePage : www.g-sit.com
Kakao : PHD9999 TP : 62-21-720-4640 HP : 0811-149-586 E-Mail : phd@g-sit.com
Grand Wijaya Center Block F41 Lt.3 No.11 Kebayoran Baru Jakarta

인도 덴탈 센터 전문치과병원

INDO DENTAL CENTER

치과의사 정혜정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 프리삭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쉐도잉
- 뉴욕대학교 치과대학 신경치료 연수

DRG. Jung Hye Jung(Helen Jung)

예약전화 : 021-2751-3777

info@indodentalcenter.com
Jalan Wolter Monginsidi No. 97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구 한강 레스토랑 옆, 하나은행 건너편)

2018 한인사회 10대 뉴스

● 주인도네시아 김창범 대사 부임

김창범 대사 부임 “13년만에 다시 왔다” 2005년 정부참사관에 서 2018년 대사로

김창범 대사가 지난 2월 8일 저녁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도착했다. 김창범 대사는 정부참사관

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5년 본국으로 귀임하고 2018년 2월 대사로 다시 부임하게 된 것. 이 자리에서 김창범 대사는 “2005년 2월 이후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13년만에 다시 찾아왔다.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커졌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제 3월중에 신남방정책 관련 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련 업무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인사회 다변화...세대간 계층간 갈등 문제

2018년은 어느 해보다 한인사회의 세대간 계층간 변화가 많았다. 이에 양영연 한인회장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 안해요. 또 우리들 생각이 꼭 맞다고도 생각 안해요. 서로 만나서 진실되게 만나면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회장은 한인 진출이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에 오면 먼저 한인회를 찾으라고 전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한인회원 카드

를 관계기관에 제시하면 그들이 한인회에 연락할 것이고 한인회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2018년 한인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단합과 결집이 더 필요한 시기에 한인사회도 세대교체가 많이 되고 계층별 변화도 많았다. 젊은 세대들이 촛불집회 세월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화된 모습이다. 한인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쩌든 한인사

회의 세대간 갈등을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온다. 처음와서 언어도 안되지 문화도 모르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우리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고 꼭 안착이 돼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조코위 대통령 남북한 대사 단독초청

조코위 대통령은 4월 30일 낮 대통령궁으로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김창범 대사 안광일 대사와 감담회에서 “인도네시아는 남북한의 화해과정을 대단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후, 후속조치로 양국은 헤어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 조코위 대통령은 김창범 대사 안광일 대사와 기자 인터뷰에 앞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남북한은 자카르타 팅라방 아시안 게임 성공개회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의 남북한 대사 초청 간담회에는 한인포스트를 비롯 50여 대통령궁 기자단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 주재 남북한 대사가 한자리에 서 단독으로 만나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인도네시아와 수교 이래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 아시안게임 첫 남북한 응원전

이낙연 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 김일국 북한 체육상도 한 자리

단일팀 경기 응원석마다 남북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요” 악수 격려

자카르타팅라방 아시안게임기간 남북한이 처음으로 한자리 앉아서 손잡고 응원하는 모습이 각 경기장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각국 아시아게임 취재단은 놀라고 있다. 국제경기에서 남북한이 공동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했지만 응원단은 따로 자리에 앉아 응원해 왔다. 하지만 2018 자카르타 팅라방 아시안게임 코리아 응원단은 달랐다. 글로라 봉카노로 농구 경기장에 여자 농구 게임은 “코리아” “우리는 하나다”를 외



치는 남북한 응원단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지난 인도전이 열린 여자농구 경기장을 찾은 이낙연 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 그리고 김일국 북한 체육상도 한 자리에 앉아 “코리아”를 응원했다. 이낙연 총리는 남북 선수단을 찾아 격려했으며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응원석을 찾아 북한응원

단과 악수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격려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6-15남측위원회가 모집하고 신한은행이 후원한 ‘원코리아 공동응원단’과 인도네시아 민관합동지원위원회 응원단도 흥을 돋우며 응원전을 펼쳤다.

● 한인기업 탈 수도권 이전 가속화 지방화 시대

저임금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집약적 업종기업은 중부자와 서부자화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다. 신발 봉제 가발 가구 인형 가방 등에 종사하는 한인기업들이다. 한인기업들의 지방이전으로 한인이주가 늘면서 지방 한인회가 신바람이다.

스마랑 한인회(회장 김소웅)가 지난 9월 23일 스마랑 부깃사리 소재 콤파트 골프장에서 300여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풍요로운 한가위 대잔치를 열었다. 골프 라운딩에 이어서 만찬에 자카르타에서 송편을 보내오고, 살라피가 한인식당에서까지 풍성한 음식을 보내줘 가장 많이 참석한 스마랑 송년의 밤을 장식했다. 스마랑은 특히 기업들이 중부자바에 전입하는 추세로 한인들이 늘고 한인회 활동의 활기가 살아나는 곳 가

운데 하나다.

저빠라(Jepara) 한인회도 지난 12월 6일 오후 5시부터 저빠라 바비알릿 야외 광장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저빠라 한인회(회장 문창윤)는 2018년 정기총회 겸 Jepara K-pop Festival을 열고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2018년 정기총회에서 김신 대표를 제5대 신임 한인회장으로 추대하고 한식 페스티벌을 열었다.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150여명에게 선물과 음식을 전달하고 저빠라 경찰과 군인 그리고 지역 유지를 초청해 만찬과 함께 초청 가수 공연을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다.

저빠라 한인회 송년의 밤은 어느 한인회에서 볼 수 없었던 현지인과 한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상생하는 축제의 한마

당이였다. 한인회는 얼마 전 한인회관을 신축 기공했다. 지난 2017년 12월 2일 2,065m2의 대지위에 연면적 544m2의 회관 기공식을 했다. 1층은 한글학교와 숙소, 2층은 한인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80년대 수도권 중심에서 봉제 신발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중부자바는 IT문명과 신진 기업들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값싼 중부 자바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제조와 서비스가 어울러진 “고퉁로용/gotong royong”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재도약하는 지역이 중부자바다. 이제 단순 지방이전이 아닌 권역별 업종별 전문화 단지로 육성해서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추는 한인경제비전을 제시할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다.

● 조코위 대통령 방한으로 한국기업 진출

창덕궁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지난 9월 10일 열렸다. 양국 정부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방위산업, 철도, 자동차, 정보통신,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추진하기로 한 투자는 7조원 규모다. 양국 정상은 이같은 교류확대 추세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0일 청와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



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경전철과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협력사업 MOU 15건이 체결됐으며, 투자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증가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가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깊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 한인회, 영사동 부지 사용권 반환 추진위원회 발족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 이하 한인회)는 지난 4월 25일 한인회 대회의실에서 구 한국학교 부지에 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영연 한인회장은 “오늘 모임은 구한국학교 영사동 부지 문제에 관한 절차상 중요한 자리다.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인회가 단독으로 나서는 것 보다 한인사회가 통일된 한목소리로 관련 조직체를 구성해서

대사관과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 한국학교 영사동부지 문제는 수 년동안 한인사회 단체 SNS와 문서를 통해 이슈화됐고, 양영연 한인회장이 취임하여 한인역사바로잡기 소위원회를 발족해 이를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대사관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조용준 한인역사바로잡기 소위원회 위원장과 송재선 코리아

센터유지재단 이사는 “구영사동 부지에 관한 사용권은 한인회에 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송창근 회장은 “한인회 사용권 근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한인단체가 한목소리로 나가야 한다”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정리하는데, 부정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취업비자 허가완화 대통령령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20 Tahun 2018)을 공포에서 취업허가 2일 이내 처리하고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언론은 4월 5일자 속보에 따르면, 2018년 20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여 3월 29일에 야손나 라올리 인권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률로 정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는 서류완비 접수 후 2일 이내 처리한다고 대통령령에서 못박았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규 대통령령의 주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TKA/Tenaga Kerja Asing)를 고용하는 고용주 (Pemberi Kerja)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을 발급받을 때 관련 장관이나 지정한 기관장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주 이사 (direksi)나 법인 감사 (anggota Dewan Komisaris)로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Pemberi Kerj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 (RPTKA) 발급이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 (TKA)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주 (Pemberi Kerja)는 인권법부(Peraturan Menteri Ketenakerjaan)와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TKA)를 위해 임시 체류허가 (ITAS)를 받아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 ITAS (Izin tinggal Terbatas)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될 수 있다. 또 다른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TKA)는 근로자 보험회사 (BPJS Tenaga Kerja)에 등록되어야 하고 보험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72 Tahun 2014)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복수업종의 근무를 다시한번 제한하고 있어 근무지에서 취업허가에 맞는 근무에 주의해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직책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 외국인 비자관리 2중으로 단속...,법무부 노동부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청 TIMPORA에 이어서 노동부도 지난 5월 17일에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를 구성했다.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외국인 근로자채용허가 (IMTA)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20 Tahun 2018)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의 근로자, 이주자, 인구관리위원회가 추천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Republika.co.id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구성한 외국인근로자 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이전의 이민에 관한 법률 (UU Nomor

6 Tahun 2011)에 의해 구성된 이민청 소속 외국인감독팀 (Timpora)과 업무를 분리하게 된다.

5월1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니프 다끼리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기업관리자들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게 되고, 외국인 감독팀 (Timpora)은 이민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감독한다고 발표했다.

법무인권부 이민감독국 (Kasubdit Pengawasan dan Penegakan Ditjen

Keimigrasian Kemenkumham)의 Adnan국장은 “외국인 감독팀 (Timpora)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구성했다.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감독팀은 외국인들을 감독하는 이민청의 외국인 감독팀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포스트들은 법무부 이민청 외국 일반인 합동단속반 팀포라(Timpora)에 이어서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가 가동되어 2중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 시스템 적용에 혼선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투자청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 (Online Single Submission)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을 발표했다.

투자조정청(BKPM)은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를 6월 29일 잠시 중단했고, 이후 경제조정부는 온라인으로 전국 34개주에서 실시되며, 온라인으로 지방정부와 허가사항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는 투자자에게 쉽게 허가를 주기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이다. 조코위 대통령

은 투자자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OSS 시스템은 특별경제구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과정 처리를 포함하게 된다.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은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에 따르며, OSS 관리 기관(OSS Agency)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아직 OSS Agency는 설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경제조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향후 모든 투자자의 사업허가 절차는 전기

전자, 산업, 무역, 환경 및 임업, 금융, 교통, 인적 자원 등 최소 20개 이상의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해 OSS System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OSS System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자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NIB 발급, 사업허가, 상업·운영 면허, 약정 사항 이행, 각종 면허 및 허가 활성화, 사업 착수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 등 전체 법인에 적용되므로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NIB를 발급받아 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9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인포스트는 지난 2005년 10월 1일 창간 이후 14년 동안 한국 인도네시아 정보 전달과 한인동포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8년은 다사다난이 부족할 만큼 큰 사건 사고와 감사의 일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지진 쓰나미 화산 테러 사건도 사고도 많았고, 정치 경제적 격동도 컸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환율사태도 있었고요, 해외에 나와서 불편한 주재국 법규에 맞추어 살기가 힘들지만 한인동포 모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어느 해 보다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어느 해 못지 않는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한인포스트 독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14년간 한인포스트를 후원해 주신 수많은 광고주와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한인포스트 임직원 일동 드림-

HanInPost

한인포스트

Rp. 40,000/일 (10일 이상)

한국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전국 어디서나 뽕뽕터지는 U+LTE

THE ULTIMATE

외근, 출장, 여행 등 외부에 있을 때 와이파이존 찾아 헤매시나요?

휴대용 와이파이 무제한 1일

하루 1GB 사용 후 속도제한 [무제한]

동시 10명 접속가능 | 촘촘한 LTE 전국망 | 빠른 LTE 속도

국내에 여행 또는 출장 온 외국인

이동업무가 잦은 직원이 많은 기업체

스마트폰 테더링이 불편한 분들 (데이터, 배터리 부담)

HanInPost
한인포스트

Service Center

+62 813 1999 9114
+62 812 1004 999(한국인)
+62 21 4586 9199

(WiFi-013) Available WhatsApp, KakaoTalk & Line